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명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현 정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현 정

인 준 서

김현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련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련태도와의 관계를 밝히며,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련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며,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4개 요인을 사용하였고, 외모관리행동은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헤어관리의 5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은 5점 Likert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중앙치 분리법에 의하여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신체노출태도는 노출의복수용도와 노출의복착용도를 포함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외모관리비와 체형을 조사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피험자의 성별, 연령, 사회계층을 조사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남녀대학생 632명으로서 남자 302명, 여자 330명이었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χ^2 -검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

첫째,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다. 여자는 연령에 따라 자기조절효능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25세 이상 집단이 24세 이하

집단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았다. 체형에 따른 차이에서 보통 체형의 남자는 비만형 및 마른 체형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고, 여자의 경우는 비만형이 다른 유형보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둘째, 연령과 성역할정체감의 관계를 볼 때 17~19세는 여성성 집단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상류층은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하류층과 중류층은 미분화 집단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셋째,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는 상, 중, 하류층의 순으로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 남자의 경우 체형에 따라 의복관리 및 체중관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마른 체형이 체중관리도가 낮았고, 비만형은 마른형 및 보통형보다 의복관리 정도가 더 낮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마른형이 비만형과 보통형보다 체중관리 정도가 더 낮았다.

넷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에 대하여 휴가, 모임, 등교, 이성친구를 만날 때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휴가 갈 때에 신체 노출의복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등교시의 노출의복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는 20대 후반이 17~19세 및 20대 전반보다 노출의복수용도가 낮았다. 남자의 경우 상류층은 등교시의 노출의복수용도가 다른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보통체형이 비만형 및 마른형보다 밀착된 상의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여자는 가슴노출된 의복을 보통체형이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어깨 전체가 노출된 의복은 비만형보다 마른형과 보통형이 더 많이 착용하였다. 또 여자는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마른형, 보통형, 비만형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였다.

2.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와의 관계

첫째, 자기조절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남녀 모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높은 편이었고, 여자는 남성성 집단이 가장 높았다. 과제난이도선호는 양성성 집단이 남녀 모두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 집단이 남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피부관리는 여자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남자는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다. 헤어관리는 남녀 모두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다.

셋째, 남녀 모두 남성성 집단이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여자의 경우 어깨노출과 다리노출 의복은 남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넷째, 여자는 양성성 집단이 외모관리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순이었고, 남자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외모관리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관련성

첫째, 남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성형관리와 피부관리는 적게 하였다. 여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와 피부관리를 많이 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를 적게 하는 편이었고, 여자는 의복관리와 피부관리를 많이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

호가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를 적게 하였다.

둘째, 여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편이었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슴과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남자는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어깨와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셋째, 여자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외모관리비의 지출이 많은 편이었다. 남자는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4.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여자이면서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사회계층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를 많이 하였고($R^2=.136$),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체형관리를 많이 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R^2=.065$). 또 과제난이도선호와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성형관리를 많이 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성형관리를 많이 하였다($R^2=.152$).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피부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28$).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며, 과제난이도선호가 낮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R^2=.036$). 여자이면서 연령이 높고 사회계층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R^2=.099$). 여자이면서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며 사회계층이 높고,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총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 5개 변인이 총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6.8% 였다($R^2=.168$).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많이 하였고, 의복관리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

을수록 많이 하였다. 성형관리와 헤어관리는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많이 하였으며, 특히 성형관리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높았다. 외모관리비는 여자이면서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많이 지출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노출의복수용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20대 후반이 노출수용도가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변수로 사용한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은 남녀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관리비, 노출의복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자기효능감	7
2. 성역할정체감	19
3. 외모관리행동	26
4. 신체노출	42
III. 연구방법	49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49
2. 용어정의	51
3. 측정도구	55
4.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63
5. 자료분석	65
IV. 연구결과 및 논의	67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	67
2.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와의 관계	81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관련성	89
4.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95
V. 결론	105
1. 요약 및 결론	105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1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56
<표 2>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	58
<표 3>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59
<표 4> 남녀 외모관리비의 분포	62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64
<표 6> 자료분석 내용 및 측정방법	66
<표 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68
<표 8>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	70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72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	75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	78
<표 1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효능감	81
<표 1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83
<표 1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	86
<표 1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	88
<표 16>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	89
<표 17> 자기효능감과 신체노출태도와의 상관관계	92
<표 18>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와의 상관관계	94
<표 19>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6
<표 20>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7
<표 21> 총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50
<그림 2> 남녀대학생의 월평균 외모관리비	62
<그림 3>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98
<그림 4> 성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99
<그림 5> 외모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101
<그림 6> 총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102
<그림 7> 자기효능감이 총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	103

I.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전, 의학의 발달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미에 대한 개념도 다양해지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녀 모두에게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는 여성에게 일반적이었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도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신체외모(physical appearance)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김정미, 2006). 자기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서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성격, 호감도, 느낌, 취향, 생각, 지위,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외모란 외면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합쳐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게 현대인들은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류현혜, 유태순, 2007).

Kaiser(1997)는 사람들의 외모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은 의복, 체중조절, 성형수술, 피부관리, 화장 등을 통해 외모개선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적인 신체와의 거리감을 최소화시킨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타고난 외모와 신체결점을 그 시대에 요구되는 미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외모관리행동인 것이다.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남녀의 구분없이 외모관리에 과감

한 투자를 하고 있다(이시원, 2004).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외모관리인 것으로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29%)’를 꼽았고, 특히 남자 응답자 중에서도 26%가 ‘다이어트, 성형, 피부관리’를 꼽아,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를 일컫는 ‘그루밍’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EBN 전문지, 2008. 02. 12).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에 있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외모’이다. 취업정보 사이트 잡코리아가 채용담당 임원 761명에게 ‘면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질문한 결과, 80% 이상이 “중요하다”고 답해 실제 ‘외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 02. 13). 물론 실력보다 외모가 우선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설문조사한데 따르면 네티즌의 71%(405명)가 같은 조건에서 면접시 외모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스포츠서울, 2007. 10. 11) 실력과 더불어 외모는 자기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외모관리 열풍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타고난 외모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하여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하는 의지는 여러 가지 외모 관리행동들로 나타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외모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타인을 평가할 때 신체적 매력에 따라 여러가지 특성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조지숙, 김경연, 1994). 현실적으로 신체적 매력의 효과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에서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외모로 인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면 대인관계나 업무수행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며 행동에도 부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말한다(유태순, 김성희, 2001).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변화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 되며 그들의 사고 유형과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Bandura & Schunk, 1981). 따라서 인간의 행동변화의 결정요인이 되며,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외모관련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Humphrey, Klaasen, Creekmore(1971)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고 의복을 통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자신에게 만족하였다(고애란, 김양지, 1996). 이처럼 외모에 대한 느낌이나 수용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이란 특별히 남성, 여성 각각에 대한 행동기대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태도와 행동 및 그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이선재, 1996).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각 성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에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되면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도 변화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다움과 여성은 여성다움이 기대되었다면 현대의 사회변화 속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호해졌고(이윤정, 2007), 남성적 여성적 행동에 대한 관점도 크게 달라졌다.

Bem(1974)은 성역할정체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대학생 피험자의 35%가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이 둘 다 강한 사람을 양성성이라 칭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적응력이 우수하며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최근 남성과 여성과 같이 적극적인 외모가꾸기 현상이 부각되는 것은 사회적 요구이자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보수적인 가치관과 유교사상의 영향은 신체노출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 성의 개방화 등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복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고, 신체노출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게 하였다.

신체노출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노출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뛰어난 몸매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지닐 수 있다(이미숙, 박성은, 2004). 이수지(1993)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니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신체 만족도가 낮을수록 체형을 강조하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외모에 자신이 있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임숙자(1992), 정삼호(1990)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을 의식하여 의복으로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려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개념과 달리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으로 사람들은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모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외모에 관련된 소비활동이 많아지고 높은 관심을 이루고 있으며, 적극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좀 더 자유롭고 솔직하며 개방적이

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모가 특히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의복, 체형, 피부상태, 화장, 헤어 등이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주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의 남녀 대학생들은 외모와 관련하여 높은 관심과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외모관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다. 외모와 관련된 이러한 태도는 자신감이나 개인의 자기 능력평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외모관련행동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외모는 타인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나 여성성 등의 성역할정체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모관련태도와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현재의 소비시장에서 남녀대학생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외모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에 도움을 주며, 이와 관련된 분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련태도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외모관리비를 포함하였으며, 외모관리행동에는 의복, 체중, 성형, 피부, 헤어관리를 포함하였다. 이에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리행동과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자기효능감 및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련태도와의 상호관계를 밝히며,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둘째,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

관리비와의 관계를 밝힌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넷째,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또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서 통상 상황적이고 구체적인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하고(Bandura, 1997),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Eden & Aviram, 1993).

Bandura(1977)는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인지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적 정보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변형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지능이나 적성 같은 인지적 능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이정연, 이창숙, 2002). 즉 여러 인지적 과정을 대표한 중심개념이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표로 삼는 것이다(박현일, 김기원, 200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신감이란 특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실성 정도 또는 믿음이라 정의된다(Vealey, 1998). 이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작용되는 것이다.

Bandura(1977)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상회한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회피하는 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과제를 회피하는데 비해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과제를 보다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과 장애나 혐오경험을 무릅쓰고 행동이 지속되는 정도를 결정하며,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하였다(이정연, 이창숙, 2002).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만 강한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하였다(배정숙, 1998).

사람들은 자기행위를 판단하고 이끌어 가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Bandura, 1982). 이러한 내적 기준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할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애란, 이수경, 1998).

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정서적 가능성의 네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Bandura, 1986). 이 중에서 성취경험이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어떠한 과제를 착수 할 때 자기능력을 과잉추정하면 그 과제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자기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자기 잠재력만큼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효능감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노력을 더욱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전준선, 2006).

여러 학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Bandura(1977)

는 자기효능감을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행동은 결국 행위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Schunk(1982)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고 때로는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Wood, Mento과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Milgtam 등(198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지각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Gellathy와 Meyer(1992)는 자기효능감을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이라 정의하였고, 안순자(1997)는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있는, 효율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은영(1999)은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인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개념으로 특정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점에서 인지적이면서도 정의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이다 (이정연, 이창숙, 2002).

자기효능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기대가 있는데, 자기효능감의 조작적 정의는 이 두 가지 기대인 결과기대와 효능기대

의 차이를 설명하므로써 규명할 수 있다.(Sherer et al., 1982).

효능기대는 확실한 결과를 낳는데 요구되는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77). 즉 어떤 장면에서 자신이 어떤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는가를 지각하는 것-효능에 대한 자기지각-은 미래의 행위를 단순히 추정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매개 과정으로 여러가지 효과를 미친다(Bandura, 1982).

결과기대는 하나의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를 낳는데 요구되는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77). 이렇게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회의가 생긴다면 행동이 유발되지 않을 때 결과기대와 효능기대간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차정은, 1997).

Bandura(1982)는 한 과제에서의 성공으로 인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우 유사한 과제의 성공으로 자기효능감이 일반화 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상이한 과제나 혹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특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Sherer 등(1982)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일반적인 지각을 한다고 보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그들은 개인이 과거에 과제 수행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한 경험은 바로 그 행동과 관련된 행동 이외의 다른 행동으로 일반화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일반화된 행동은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아형과 차정은(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예비척도 개발연구에서 얻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구성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감(self-confidence)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나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Sherer et al., 1982). Bandura(1986)은 자신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상황-특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지만, 이를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문적 수행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아영, 2002). 이와 같은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Bandura, 1993).

(2)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자기조절체계가 인간행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표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긍정적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김아영, 1996). 따라서 자기조절효능감이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는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기술이 목표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확신정도로서(Bandura, 1986; Bandura, 1993; Schunk, 1990; Zimmerman,

1989)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 할 수 있다(차정은, 1997). 자기관찰(self-observation)이란 자신의 행동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의도적 주의집중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진전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능을 하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자기판단(self-judgement)이란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목표특성, 목표달성의 중요성, 수행에 대한 귀인에 따라 수행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 여부가 결정되었다. 자기반응(self-reaction)이란 목표과정의 만족여부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스스로 동기화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andura, 1986; Schunk, 1990; Zimmerman, 1989). 즉 자기조절효능감은 앞서 언급된 자기관찰, 자기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과 자기반응과 같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나타내었다(Bandura, 1993).

(3) 과제난이도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자기효능감 수준은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고(Latham & Locke, 1991),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은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Bandura, 1993; 1977). 과제난이도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Bandura, 1993).

Sherer 등(1982)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정의하기를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의 정도로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의와 행동을 잘 방향지우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며 어려움이 닦쳤을 때에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한다(Latham & Locke, 1991). 자기효능감은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 패턴, 작성, 궁극적인 행동 등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77).

Holahan & Holahan(1987)은 자기효능감을 높이 지각한 사람일수록 실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 개인이 성공을 운이나 기회로 귀인하지 않고 능력으로 귀인할 때 자기효능감 기대가 향상되므로 내적 통제적인 사람은 외적 통제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Bandura, 1977).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들이 평가한 효능감 기대(efficacy expectation)에 따라 동년배 집단의 행동이나 언어 혹은 의복의 스타일의 모방정도를 결정하고 도덕성, 가치관, 사회적 행동 및 성행동을 결정한다(장휘숙, 1993).

Bouffard-Bouchard(1990)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행수준과 무관한 허위의 또래수행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높거나 낮은 효능감을 주입하였다. 그 결과 효능감이 높아진 학생들은 인지능력은 같지만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게 된 학생들보다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했고 해답을 찾을 때 더욱 전략적 융통성을 보였으며, 높은 지적 수행을 달성하였고 자신의 수행수준을 더 정확히 평가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1). 이와 같이 효능감은 동기를 부여하고 전략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인 성취에 기여한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Bandura 등(1977, 1985)이 주장한 것으로 어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하며 행동적 변화에 중재적 역할을 하는 인지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잡한 인지적, 언어적, 개인적, 사회적으

로 개입된 경험을 통한 신체적 기술들의 점진적 획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Ryckman et al., 1982). A라는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변하면 B 또는 C라는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변화할 수 있다는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일반성의 차원에서 볼 때 운동은 자기효능감 중에서도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것이고 높아진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아울러 다른 자기효능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적 과제와 관련된 개인의 지각된 능력 수준을 의미하거나 혹은 신체와 관련된 지각된 자신감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Physical self-efficacy)을 말하며(Ryckman et al., 1982),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신체능력(perceived physical ability)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Ryckman 등(1982)은 인지된 신체능력은 신체적 기술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며,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기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의 수준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개인에게 신체능력(속력, 근력, 반응시간)에 대한 효능감 기대를 가져다준다(홍선옥, 1996).

Ryckman 등(1982)과 Gayton, Matthew와 Burchsted(1986)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인지된 신체능력은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보다 더욱 더 운동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Laura 등(1993)은 스포츠 경험이 없는 피험자들보다 스포츠 경험이 있는 피험자들이 훨씬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고,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피험자는 운동과제와 관련하여 불안정도가 낮았으며, 자아개념은 높다고 하여 스포츠 경험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련태도

Humphrey, Klaasen과 Creekmore(1971)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 쾌적한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고 의복을 통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감이 강한 여학생일수록 여러 상이한 의복들은 실험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즐기며 의복의 선택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김의철, 박영신(1999)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학업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 된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외모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부적상관이 있었다.

장미선, 이정연(2003)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외모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나타내었고 특히 하위영역인 자신감의 영역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부족한 자신감을 걸치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 중고등학생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타인의 우호적 반응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 성향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한다(서윤경, 2003). 신체만족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기여, 유태순, 1997).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애란과 김양진

(1996)은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 사이에 차이가 적을수록 자신에게 만족한다고 보았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각기 다른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남자는 근육이나 키 등의 변화로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기회가 되는데, 여학생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체지방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마른체형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체형의 변화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청소년기 신체적 변화는 남학생에게는 높은 자기효능감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에게는 낮은 자기효능감 형성이라는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에 따라 자신감 또는 위축감을 갖는다는 점도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구자명, 이명희, 1994).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의복태도와 화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관리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기여, 유태순, 1997).

조기여(1997)는 자기효능감, 퍼스널 스페이스, 의복근접도, 화장 근접도와 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옷을 입을 때나 입고 난후 달라진 모습에 더 많이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옷이 자기가치의 정도를 더 많이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옷에 의해 자신의 이미지가 더 많이 새로워진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옷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고애란과 이수경(1998)의 여고생을 대상으

로 한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여러 측면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행선도력, 심리적 의복의존성, 주위집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매력, 미모와 멋진 체격이 동년배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되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학생들은 또래 수용에 자신을 갖게 되고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채택을 통한 동료집단의 관심과 호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혜경, 유태순(2001)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성향 및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에 대한 유행성과 흥미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진 여성이 최신유행의 의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착용하게 되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동조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여성은 주위의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화장정도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화장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삶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과 긍정적 피드백을 위해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사회생활이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선옥, 표내숙(1994)은 성역할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과학 고등학교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에서 여성성인 여고생은 다른 성역할을 지닌 여고생에 비해 인지된 신체능력(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양성성, 남성성, 미분류, 여성성 순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성인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여성성인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성인 여고생은 비교적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정연, 이창숙((2002)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관련변수로서 가족변인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는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상황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개념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백련화, 1998)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미선, 이정연(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청소년은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았다.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증명한 박진아(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윤운성(1999)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년별,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중학

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노호은, 박경자(2001)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이동영, 1997; 문혁준, 1999)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서 의복, 화장, 피부 등의 외모관리행동은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미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면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지각하고, 불만족에 대한 개선으로 외모관리행동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모관리와 행동들은 자기효능감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성역할정체감

1) 성역할정체감의 개념

어떤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 또는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 대해 남성, 여성이라는 신체적 구분에 대하여 기대하는 특성, 태도, 가치, 행동을 성역할이라고 한다(Lenney, 1991).

Block(1973)은 성역할을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내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서 특정 지위질 수 있는 여러 특질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성역할이란 특정 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이며 이러한 기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

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 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강혜원, 1994).

따라서 성역할은 각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관점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의 정의를 습득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고(Bem, 1974), 각 개인이 어떠한 성유형화가 되는가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며 문화와 사회속의 성역할을 자신이 얼마나 그 역할기대에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지각이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즉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에 개인이 얼마나 일치된다고 지각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볼 수 있다(이윤정, 2005).

이와 같이 성역할은 사회와 문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1974년 Bem을 위시한 여러학자들이 표준화된 성역할 측정검사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성역할정체감의 척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Bem의 Sex Role Inventory(BSRI)는 성정형화 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긍정적 성격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기자각을 이용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Lenney, 1991).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역할은 학습하는 것이다. 성 정형화 과정의 결과로 각 개인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어느 정도 습득하여 행동에서 나타내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 이두가지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남자는 남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여성적 특성은 없는 것으로,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왔다(임선옥, 1991). 그러나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성의 해방, 핵가족 구조로의 변화,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성 등으

로 성별에 대한 차별 현상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현재 사회에서는 성역할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의 역할이 변하게 되어 남성에게 강한 육체적 힘이나 부드러운 정서의 억압, 여성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 같은 남성간의 강한 유대 등을 강조했던 기존의 성역할보다는 다감하며 감성적인 친밀성, 대인관계의 기술 등을 요구하고 있다(Bernard, 1976).

원래 BSRI(Bem Sex Role Inventory)는 심리학적 양성성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을 선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서 작성되어 있으며, Bem에 의한 양성적 인물이란 남녀 모두의 성의 특성이 몸에 배어 있는 자로 남성 역할과 여성역할 모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장하경, 서병숙, 1991). 이는 그 이전의 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양성성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들은 남녀는 뚜렷이 다른 성격을 지녀서 여성은 여성성만을 남성은 남성성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다르다.

즉 양성적 시각에서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은 변화하며 따라서 현대는 유능한 성인일수록 그 양자를 조합해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Bem, 1975; Spence, Halmreich & Stapp, 1975).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많은 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에게 그 성에 적절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곧, 그 반대 성의 특질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 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다(Bem, 1974; Bem, 1977; Spence, Halmreich & Stapp, 1975).

Bem(1974)은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에 따라 응답자들을 양성성 집단, 남성성 집단, 여성성 집단, 성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응답자들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간값을 이용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집단을 양성성 집단, 남성성은 높으나 여성성이 낮은 남성성 집단, 여성성은 높으나 남성성은 낮은 여성성 집단,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남성적인 남성 혹은 여성적인 여성들은 그들의 자아개념에 전통적인 성역할을 결합하게 되며 이들에게 성이란 사회에서 중요한 차원이 된다. 반면 성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양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개념에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결합시키지 않으며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었다(이현지, 박옥련, 2005).

2)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의복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전달에 의해 강화되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복을 형태상으로 확실히 구별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윤은아, 이선재 2000).

또 남성의 치장은 의복에서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도 최소화 될 것이 요구되어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가꾸는 등의 행위는 비남성적이고, 신체 부위에 있는 털을 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노출하는 것이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Boroughs, Cafri & Thompson, 2005).

Davis(1984)는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감 및 성에 관계된 의복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녀 모두 성과 관계된 의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생물학적 성이었고 남성의복에 대한 주 효과는 성 정체감이었으며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알맞은 의복

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성역할 행동의 확실한 표현이며 남성은 남성적인 의복을 여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보이게 되어 각 개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차별을 고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Duvall(1977)은 현대 젊은 세대의 의복, 몸치장, 행동에서 나타나는 유니섹스 경향은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고 성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 방식으로부터 점차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남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남자의 의복에 대한 고정 관념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어 의복이 다양해지고 색상도 화려해져서 남자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강혜원, 1994). Bem(1974)은 남자라서 남자옷을 입어야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옷을 입어야 하는 시대는 지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이냐에 따라 남성적인, 여성적인 또는 남성적-여성적인 요소가 복합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성역할 개념은 미에 대한 정의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외모나 체형에 따라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에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성역할정체감이 반영되는 의복행동과 태도 등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개인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성향에 따라 의복인지도와 선호하는 의복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윤은아, 이선재, 2000).

이윤정(2007)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남성성이 높을수록, 의복에서 유행성과 개성을 추구할수록, 의복의 동조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를 많이 하였는데, 이것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여성적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특별

히 여성적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남성성이 강하였다.

이지현(2004)은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과거의 성역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양성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성성의 남자 대학생이 체격관리와 의복, 장신구 구입 등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모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동성연애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성과 상관없이 동성연애자 집단이 이성연애자 집단보다 유행 혁신성이 높고, 외모관심의 라이프스타일이 높았으며(고애란, 남미우, 1998), 김재희 (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양성성 남자가 유행에 대한 관심, 신분 상징성,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역할에 개방적인 양성성 집단이 유행형 복장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1992).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다양한 여성복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남성적 여성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복으로 유니섹스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김정립(1990)은 성역할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의 여대생이 여성성의 여대생보다 유니섹스 스타일과 양의 디자인의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복에 대한 의복이미지 선호와 성역할정체성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명희(1993)는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은 여성적 이미지를 남성성 집단은 남성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등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 의복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다름을 밝혔으며,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여성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이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는 남성성이 높으면 직선디자인, 캐주얼한 스타일과 거친 옷감, 남성적 디자인 등 양의 의복특

성을 선호하였고, 여성성이 높으면 부드러운 옷감과 꽃무늬, 여성적 디자인 등 의복에 나타난 음의 특성을 선호하였다(이인자, 1976; 정삼호, 강혜원, 1977; 정복남, 추미선, 1983; 이현미, 1987; 박인미, 1989).

이선재(1996)는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성역할 태도는 남성성, 양성성인 사람이 많았으나 의복디자인 선호태도에서는 여성적 태도를 나타낸 사람이 많아 성역할 태도는 많이 남성화, 양성화 되었으나, 아직도 의복디자인 선호에 있어서는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성역할 변화에 따른 의복행동 및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최경희, 강혜원, 1985; 최윤경, 1990; 유경숙, 1996)가 시도 되었다.

성인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40대의 고졸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정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양성성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30대의 대학생과 대졸 학력을 지닌 전문기술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은 미분화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윤은아, 이선재, 2000).

이선재, 백선영(2000)의 고교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고교생의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이 가장 높은 성향을 나타냈으며 여성성, 미분화, 남성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남성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여학생은 미분화에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거주지에서는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교생들에게서 남성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현지, 박옥련(2005)은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 요인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변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입별에서는 수입이 낮을

수록 양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이 높았고, 수입이 높을수록 남성성 집단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변수와 항목에서 양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이 전통적인 성역할 집단인 남성성, 여성성 집단보다 모든 변인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은 시대와 문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남녀의 성에 관해 큰 차이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단순히 성차이를 넘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성역할정체감은 가치관, 사회적 역할, 생활태도, 행동양식 등이 나타나는 자아정체성의 일부로서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이나 의복행동, 외모를 대하는 태도 등에도 표출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이 실제로 의복이나 체형, 성형 등의 외모관리행동과 다른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체격, 얼굴, 의복, 화장, 액세서리, 건강상태, 체취 등을 포함하며(황인정, 1993), 외모관리행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의 여러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애, 김용숙, 2001).

즉 외모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신체적인 외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을 외모관리행동이라 할 수 있다.

Lennon 등(1999)은 사회비교이론을 기초로 신체미학 모델을 발전시켰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어떤 문화 내에서 이상적인 외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창조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적 기준으로 내면화되며 이상적 기준에 접근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이 동기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이런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타고난 외모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김선희, 2003)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외모의 가치판단을 향상시키려 한다(Kaiser, 1997).

임숙자 등(2000)도 외모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바디이미지)이므로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개인의 의지가 옷이나 헤어스타일, 화장품에 신경을 쓰는 것에서부터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 적극적인 외모 관리행동을 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은 자신이 이상적인 외모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외모만족도가 낮아져 상실감을 가지며, 성형, 화장, 체중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외모향상행동을 하게 된다(전용민, 2003).

이명희(2003)는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어 가는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과정에서 남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한편, 성적 발달과 함께 외모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그중 고등학생들은 인기 연예인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의 모방, 유명브랜드의 패션제품 구입, 다이어트 등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외

모형상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고등학생들은 머리염색과 치아교정 등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길 원하고 유행과 멋을 추구하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또 전용민(2003)은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물질주의 가치가 높고 영상매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성형관심이 높고, 체중관심, 머리손질관심, 화장관심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화장, 헤어관리, 맛사지나 팩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운동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빈도는 낮지만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설사제와 구토제 복용 및 흡연, 성형수술 등 위험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극단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정명선, 2003).

전현진과 정명선(2008)은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중년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헬스나 요가, 의류제품을 통해 외모관리를 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모관리의도에 있어서는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성형수술의도를 제외한 기능성 화장품, 의류제품, 헤어관리, 피부관리 및 헬스/요가를 하고 싶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현대 사회속에서 외모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외모는 개인의 태도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때 신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현재의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미에 대한 기준

에 맞게 외모관리 방법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즉 유행하는 의상을 착용하거나 헤어스타일의 관리뿐 아니라 얼굴과 전신의 피부관리, 날씬한 몸을 위한 체중관리나 미를 위해 신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성형수술 등은 더 이상 특정인의 관리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인식되어지고 행해지는 외모관리행동으로서 남녀 모두 외모관리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모관리행동의 변인으로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복관리

의복에 따른 외모관리 태도를 살펴본 결과, 김아날리아와 이수경, 고애란(2006)은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의복관심/헤어관리 및 체형관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3, 6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하선정(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 및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용돈이 많거나 가정의 소득이 높은 청소년들이 의복에 있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이유선, 1998; 이은희, 2000), 중년 여성이 자신의 신체변화 및 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상적인 외모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진, 강혜원, 1992).

고등학생들의 외모관련 행동은 실질적이기 보다는 감각 지향적이므로 외모의 멋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의복과 패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유행을 따라가야만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값이 비싸더라도 유행에 맞는 옷이나 패션 잡화류를 구입하였다(이은희, 2000). 이선재와 백선영(2000)의 성역할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의 성적매력성에 더 관심이 높았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유행하는 의복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김희창(1999)의 청소년기 의복행동 연구에서 여고생은 대인관계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성을 의식할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머리모양을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황진숙과 김윤희(2006)는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의 연구결과에서 20대 중반의 소비자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는 경향이 높았다. 또 남성들은 과격한 체중조절이나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보다 평상시 운동이나 식사습관, 수면 등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은 대학생은 과격한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반면에 고학년은 체중조절 및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숙 등(199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이성 교제시 자신의 용모(26.5%)와 옷차림(13.7%)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여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구를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복에 대한 관여 정도가 크고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몰두하게 되므로 의복을 중요시 하고 새로운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전경숙, 2000).

전경란과 이은희(2005)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비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 그리고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이 의복의 성적 매력성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또한 유행하는 의복과 개성 있는 옷차림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복은 개인의 외모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을 통하여 신체모습을 표현하며 외모를 향상시키려 한다. 따라서 의복은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거나 강조해줄 뿐만 아니라 내적특성을 표현하는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체중관리

신체적 매력에 대한 현대의 미의식은 날씬함과 연관되어 좀 더 마른 몸매가 선호되며 이러한 날씬함에 대한 선호는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체중관리가 외모관리유형 중 응답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외모관리행동임을 알 수 있었으며(김선희, 2003), 전체 연구대상자의 56.2%가 체중조절경험이 있다는 김용주(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미숙(2000)은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서 10대 청소년들은 매우 마른 체형을 여자의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의 이상적인 신체상을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은 남자보다 여자의 신체에 대해 훨씬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선호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체중조절실태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조선진, 1996; 김용주, 1999). 이렇게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인 사람도 체중조절을 위하여 음식을 조절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조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정근백 외, 1995).

이는 현대사회의 미의 기준인 마른체형이 여성에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박우미, 1993), 사춘기 신체성장으로 체지방이 높아지는 과정을 겪는 여자에게서 대체로 먼저 나타나는 것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중관리에 대해 연구한 이익자(2000)는 표준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여학생들도 체중감량을 위해 약 13%의 여고생이 이뇨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3.4%가 몸에 해로운 약 종류를 이용해 체중감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권영미(2004)는 고등학생의 체중조절관심도와 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고등학생들 남녀 모두 매스컴의 영향으로 날씬한 체형에 관심이 많아 체중조절을 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으며, 송은영(2002)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복스타일 선호와의 관련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체중관심이 높을수록 유명상표의 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청소년들이 연예인과 같은 날씬한 체격 및 체형에 대한 동경과 맹목적인 미의 추구를 위해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불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제까지는 거의 여학생들에게만 사용되어져 왔던 ‘다이어트(Diet)’란 말이 남학생들에게도 전혀 멀리 느껴지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최종철, 2003). 실제로 최종철(2003)의 남녀 고등학생의 체중조절에 관련된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있다’가 82.2%로 267명, ‘관심이 없다’는 17.8%로 58명이었으며, 남학생이 83.6%, 여학생이 81.0%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진(199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체중조절실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응답자의 85.8%가 현재 체중보다 평균 4.4% 감량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61.3%가 체중조절을 시도해 보았다고 하였다. 시도했던 체중조절방법으로는 식사조절과 운동이 각각 87.3%와 61.5%를 차지하였다.

김창현(1999)은 남자대학생의 신체의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대체로 외모에 신경을 썼으며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여위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많았다. 그리고 체형보완을 위하여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무관심, 의복으로 보완, 식사조절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중에서 키가 크며,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며, 작은 얼굴, 흰 피부색과 같이 서구적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중조절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은 신체불만족과 관련이 있으며(이영주, 1999), 여성들은 TV나 잡지에 의해 사회적 이상으로 강조되는 극도로 마른몸매를 이상화하고 이러한 현실은 자신들의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섭식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Thomson & Heinberg, 1999).

청소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에 관심이 많아서 비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명, 이명희, 1994; 심정은, 1996; 송경자, 김재숙, 1999).

이영주(1999)는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만족도 및 신체노출의복행동의 관련 연구 결과에서 체중조절집단이 연구대상자의 85.5%로 대부분이었으며, 체중조절을 하는 집단에서의 저학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였고 체중조절행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와 신체노출의 복행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신체불만족 부위가 주로 하체부위로 이 부위의 체중감량을 원하고 있었고, 의복 착용시 주로 목부위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며 여러 부위가 동시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한 부위만 노출된 의복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체중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 질 만큼 많아지고, 사회전반에 걸쳐 마른체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비만 치료기구나 약품 광고를 쉽게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체중조절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외적인 외모와 함께 신체 건강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체중관리는 중요하게 생각되어 지고 있다.

3) 성형관리

미용을 목적으로 외양을 아름답게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교정술을 미용성형이라고 하여 이는 병적인 원인이 아닌 정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조건을 더욱 아름답게 변형하고 싶어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를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두형, 장충현, 1994).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65% 이상이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하여 외모관리 중에서 신체의 부분적 변형으로 행하는 여러가지 행동 중 성형수술은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은주(2001)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였으며, 가장 수술받고 싶은 부위로는 쌍꺼풀수술, 코수술 순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가장 수술을 많이 받았다. 또 성형수술 후의 만족도와 불만요인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수술 후의 만족정도에 대해서 전체의 67.9%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수술 후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성형비용이 부담스럽고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수술한 흔적이 남은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전경란, 이은희(2005)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16세의 청소년이 성형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의 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의식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전경란, 2002).

최현진(2005)과 이형옥, 구양숙(2006)에 따르면 중년여성들이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용성형수술을 선택하고 이러한 성형수술이 신체의 매력성을 증가시키며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 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전경란(2002)의 연구에서 성형태도는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으로 구분하였고, 성형 요구도는 얼굴성형, 지방흡입, 기타성형으로 구분하였는데, 10대에서 40대 이상의 여성 중 20대가 성형가치와 성형동조가 높았으며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클수록 성형태도와 성형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얼굴과 헤어에 관련된 신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여성이 덜 경험하는 여성에 비해 실제 외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전현진, 정명선, 2008). 이처럼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이 성형 수술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위험지각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진봉(1999)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성형욕구가 높았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자 청소년은 성형수술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시술되는 미용성형수술의 대부분은 쌍꺼풀, 안면윤곽교정술, 유방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을 포함한 비만 성형술, 화학적 및 기계적 박피술(점, 흉터제거), 얼굴 및 목의 주름제거술 등이며(이두형, 장충현, 1994), 가장 성형 받고 싶은 곳은 1위가 얼굴(53%), 2위가 지방흡입술(27%), 3위가 가슴관련 수술(13%)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2001). 김선희(2003)의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코수술, 피부관리 수술 순으로 나타났다.

장휘숙(1993)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75%와 중학교 남학생의 37%, 고등학교 남학생의 66.4%가 외모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였으며, 고치고 싶은 신체부위에서는 여학생은 눈과 코, 남학생은 키를 가장 많이 고치고 싶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미희(2001)는 여성의 미용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미용성형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0.8%였으며, 성형수술 요구도는 피부성형(21.9%), 주름제거(16.8%), 지방성형(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을 성형하기를 바라는 경향도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애란, 김양진, 1996; 구정화,

1994).

이상과 같이 성형관리는 외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성형수술에 대한 의식 또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모향상과 젊음의 유지는 미용성형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이상적인 외모에 근접하기 위하여 외모관리로써의 성형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4) 피부관리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많아지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품의 사용이나 피부관리, 헤어관리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신을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의 외형에 대한 미적 개선을 위한 기술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화장품의 사용으로 화장을 하면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며,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한다(Cash, Rissi & Chapman, 1985; 이화순, 2002).

얼굴은 사회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착용한 의복보다 더 큰 영향을 주므로(문영보, 1991), 화장 및 피부관리는 자신의 매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며 자신의 특징을 선명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연결되므로 화장 및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불문하고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전용민, 2003)

Graham과 Jouhar(1981)의 조사에 의하면 자기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장품의 사용은 대인관계에서 인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영향을 주며 화장을 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이며 더 섹시하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x과 Glick(198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화장을 했을 경우와 화장을 지운 경우를 구분하여 외모의 매력 정도와 호감 정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대체로 화장을 한 경우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선희(2003)의 20대를 대상으로 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이상적인 미로 '내적인 미'와 '서구적인 신체 매력'을 추구하였으며 이상적인 미를 위해 얼굴을 가꾸고 외모관리행동으로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피부관리 경험은 얼굴관리, 손톱 및 발톱관리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의 경우 기초화장과 색조화장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혜원(1999)은 여대생의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과 학년,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외모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대학교가 남녀 공학의 여대생보다 높았으며, 출신고교 소재지의 대도시인 경우가 가장 피부건강관리 행위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희(2001)는 여성의 미용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미용 형태별 만족도를 헤어, 화장, 피부로 구분하였고, 화장 및 피부상태 만족도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학생이나 사무직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피부만족도가 더 높았다.

20대 여성들은 화장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신의 미적 표현을 위해서였으며, 외제 화장품에 대한 선호정도, 피부에 대한 관심, 전문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자 하는 욕구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의 경우는 희망하는 정도에 비해서 실제 경험은 적었는데, 이는 피부관리의 경우 경제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지영, 1999; 김숙례, 2000; 명은진, 2000).

여성들은 화장을 함으로써 외모변화에 의한 즐거움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외모의 결합을 보상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대응행동에 도움을 주며 자신감 또는 자기충족감이 생긴다(Cash & Cash, 1982; Miller & Cox, 1982). 또 자신의 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장품과 화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는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화장품의 사용이 증가되었다는 Rudd와 Lennon(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화장 및 피부관리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으로서 요즘 피부건강관리가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 미적표현의 수단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연구되어져야 한다.

5) 헤어관리

머리모양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여 왔고, 의상, 메이크업과 함께 패션경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양숙희, 2001).

패션에서 의복과 함께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며, 방송이나 잡지, 트렌드 북 등의 영향은 최신유행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해 주어서 지속적인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변화하도록 하고 있다.

미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신체의 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외적인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머리카

락을 묶거나 자르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차츰 여러가지의 경로를 통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요구되고 있다(김리라, 2004).

헤어스타일은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개인의 헤어스타일이 얼굴의 생김새와 함께 전체적인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다(이명희, 2004). 또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이 나타나고, 개인의 이미지 연출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헤어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의식수준이 변화하면서 미적인 측면보다는 모발의 건강에 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모발의 특성에 따라 이에 맞는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타일의 기본 소재가 되는 모발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리라, 2004).

헤어관리에는 염색, 펌,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모발 마사지 등의 여러가지 행동들이 있으며 가꾸기 위해 관리하는 목적과 아름다워지기 위한 외모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윤소영, 2007).

김정애(2001)는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섭취조절, 운동, 약물사용, 피부손질, 신체변화, 의복사용, 머리손질, 목욕으로 구분하였는데, 목욕, 피부손질, 머리손질 순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여고생은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머리손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선(2001)은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모발관리를 함으로써 용모를 더욱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이 93.7%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모발에 문제가 생기면 받고 싶다'라는 문항에는 86.9%의 여대생들이 '그

렇다'라고 응답하여 모발건강을 위해 모발 청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해소된다'가 63.97%로 가장 많았으며, 변화여부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관심 정도 및 평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이 많다고 하여 헤어스타일 변화에 민감한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김진숙, 1999). 또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목적은 대부분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변화를 준다고 응답하였다.

곽영심(1998)은 여성의 모발이용에 대한 의식형태 조사연구에서 20대의 여성들이 가장 자주 받는 시술로 커트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유행과 스타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발건강에 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대생을 대상으로 헤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디자인 선호도 연구에서 모발관리 방법으로는 샴푸와 린스로 머리를 감는 방법이 가장 많았고, '샴푸 후 트리트먼트나 앰플을 사용한다', '전문 헤어숍에서 모발관리를 한다'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스스로 모발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정희, 2005).

양숙희(2001)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행태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현재 헤어스타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6.6%, 만족이 41.4%이었으며,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었을 때는 주로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가 38.8%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으로', '유행에 따라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상태, 직업, 경제 상태로 나타났다. 또 학력별로 대졸이상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47.9%), 경제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체형으로는 키가 작고 마른편일수록 헤어스타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외모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헤어관리행동은 피부관리, 화장, 미용성형 등과 함께 인간의 외모가꾸기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동기로서 건강한 모발관리와 미적으로 아름다운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다.

4. 신체노출

의복은 한 개인의 특성이나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의복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며, 신체를 감싸거나 노출시키므로써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욕구의 표현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와 성의 개방화로 인하여 의복형태도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복에 있어서 노출에 대한 태도도 과거의 전통적인 견지에서 벗어나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유행경향의 하나로 어깨나 가슴, 다리, 허리 등의 신체가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고 신체에 밀착된 옷과 속이 비치는 소재가 걸옷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런 의복의 형태는 시대, 문화, 사회에 따라서 수용도와 착용정도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복 형태에 나타난 노출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디자인이나 밀착된 디자인, 트임이 있는 디자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신체의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 하게 되는데 이는 단시간에 시각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강한 에너지를 전달한다(이정옥, 권미정 1996).

신체노출에 관한 연구는 노출과 관련된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와 성적

태도 및 행동, 성범죄의 원인귀속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신체노출과 관련된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로 Abbey 등 (1987)은 특정상황에의 남녀의 노출과 관능성 및 인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노출이 적은 옷을 입은 여성이 관찰자의 성에 관계없이 성격적으로 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보다 관능적이며, 유혹적이고, 경박하며, 자유분방한 성태도에 사려가 얇고, 불성실한 성격특성을 가진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 신소진(1994)은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상형성 연구결과에서 지각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상·하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한 차림에 대하여 예의, 정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의에서는 성별과 노출 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스판덱스 바지를 제외한 노출 스타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매력, 선호평가와 예의·정숙성은 높게, 성적자극성은 낮게 지각하였다. 대부분의 노출스타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개성있게 지각하였으나 기본형의 반바지와 밀착된 긴바지의 형태와 같이 노출의 강도가 약할 때에는 남성보다 개성없게 지각하였다. 이는 김지연, 이경희(2001)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노출의 감성연구에서도 신체노출의복은 품위가 없으며 약간 선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선정적일수록 개성적으로 평가되었다.

조은영, 홍병숙(1995)은 여성의 신체 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연구에서 남녀 모두 신체노출한 의복에 대해 별로 품위가 없고 선정적이며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는 같은 의복에 대해 좀 더 품위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이성의 외모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Lubner, Rupert &

Winakor, 1985; Barnes & Rosenthal, 1985)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신체노출된 의복행동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의복행동이 상대방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여성과 남성의 행동에 있어 사회적 수용의 차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의복의 신체 노출정도에 따라서 Cahoon과 Edmonds(1987)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신체를 노출한 의복스타일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보여 목이 깊게 노출되거나 비치는 형태의 슈트와 블라우스는 관리직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균형 잡힌 완벽한 몸매에 섹시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지각된 반면,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한 여성은 날씬하지만 몸매는 좋지 않으며 평범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여성스럽고 단정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지각 하였다(이미숙, 박성은, 2004).

Paek(1986)의 연구에서도 스커트에 긴 트임이 있는 투피스와 가슴을 깊게 관 팬츠슈트 착용자는 드레시한 유형이나 캐주얼한 유형의 착용자에 비해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으며 주도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개인주의적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신체노출된 의복과 성적태도, 행동에 관련된 연구로 Mathes와 Kempfer(1976)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노출한 의복품목과 스타일에 자유로운 성적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고 믿고 있음을 밝혔는데 같은 의복스타일일지라도 남자의 경우는 상관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매력성을 지닌 신체노출과 관련된 의복 착용이 성범죄의 원인귀속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다루어져 왔다.

Cahoon과 Edmonds(1987)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은 보수적인 의복에 비해서 성적매력이 있으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성적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에 대해 여성지각자가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고애란(1990)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슈트의 복장에서 신체노출 및 색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다리노출이 정숙성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미니스커트와 깊게 노출한 목선이 성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런데 Lewis와 Jonson(1990)은 성범죄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원인귀속시 지각자의 원인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화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적흥미를 크게 유발하는 의복인 비치는 망사웃이 미니스커트 또는 진바지 차림보다 지각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원인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성적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착용시 지각자는 상황귀속보다 내적귀속을 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또 목 또는 다리노출과 관련하여 Conner, Peter와 Nagasawa(1975)의 연구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미니스커트는 정숙성 인상보다는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Gibbins와 Coney(1981)의 연구에서도 긴스커트에 비해 짧은 미니스커트는 짧고 외향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목을 깊게 판 티셔츠 형태는 좀 더 짧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성적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신체노출은 정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복에서의 정숙성은 도덕, 예의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동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서 지역, 사회 · 문화적 규범 그리고 개인의 성별, 연령,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연구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김순구, 박정순, 1990; 이명희, 1982), 이는 신체노출의 허용정도가 여자에게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강혜원(1979)의 연구에서는 여성역할에 보수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의복 정숙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크며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였다.(김순구, 박정순, 1990). 남자대학생 집단이 중년층에 비해서 인상형성시 의복정숙성 조작변인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의복정숙성에 대한 수용기준은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 완화되어 진다고 보인다(고애란, 강혜원, 1992).

또한 여성의복의 신체노출부위와 의복유형에 따른 평가에서 예의와 정숙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조은영, 홍병숙, 1995).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정숙성을 중요시하며 탐미성이나 장식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명희, 1982; 정명선, 1984).

반면에 한미연(1994)은 여대생의 사회적 태도와 신체노출 의복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태도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여대생들이 오히려 노출이 상대적으로 심한 옷을 입는다고 하여 보수적인 여성일수록 여성다움을 강조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이것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체노출은 신체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어서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이수지(1993)의 연구에서 신체에 만족할수록 미니스타일과 유행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는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Sontag와 Schlater(1982)는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의복이 몸에 잘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는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 중 자신이 없는 부위를 감추어서 체형을 보완하고자 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 중 자신 있는 부위는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하여 노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김수경(2005)의 연구인 성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도가 신체노출 의복에 대한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노출의복에 관심, 선호, 구매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신체노출의복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선호도도 높고 구매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체 노출의복에 대한 관심은 신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신체 노출의복을 선호하느냐는 감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신체적으로 만족하는가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정규진(2004)은 자기표현과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노출 관련 연구에서 자기표현과 의복태도가 높을수록 신체노출 의복행동과 신체노출에 대한 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관심이 높은 사람은 유행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담한 스타일의 착용자를 더욱 호의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의복관심이 높을수록 대담한 스타일의 착용자에 대해 더 호의적이라는 Paek(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노출에 대한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의복착용에도 긍정적일 수 있으므로 신체노출 의복행동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영주, 임숙자(2002)는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노출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에서 의복착용시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의복은 주로 목, 어깨, 목과 어깨, 목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의복이었으며 이는 체중조절을 원하지 않는 부위, 신체만족부위의 순위와 일치하였고, 여대생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을수

록 체중조절 정도가 높으며 신체노출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여대생이 가장 선호하는 노출의복은 주로 목 부위를 노출하는 의복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노출된 의복보다는 목이나 다리, 어깨 등의 한 부위만 노출된 의복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노출은 인상형성, 성적태도, 성범죄 관련간의 관계와 정숙성, 신체만족도, 의복행동 등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타인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단서로 적용되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신체노출의 수용이나 착용도는 외모관련행동들과 심리적 요인들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조사한다.
- 2)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조사한다.
-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2.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와의 관계를 밝힌다.

-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밝힌다.
-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를 밝힌다.
-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의 차이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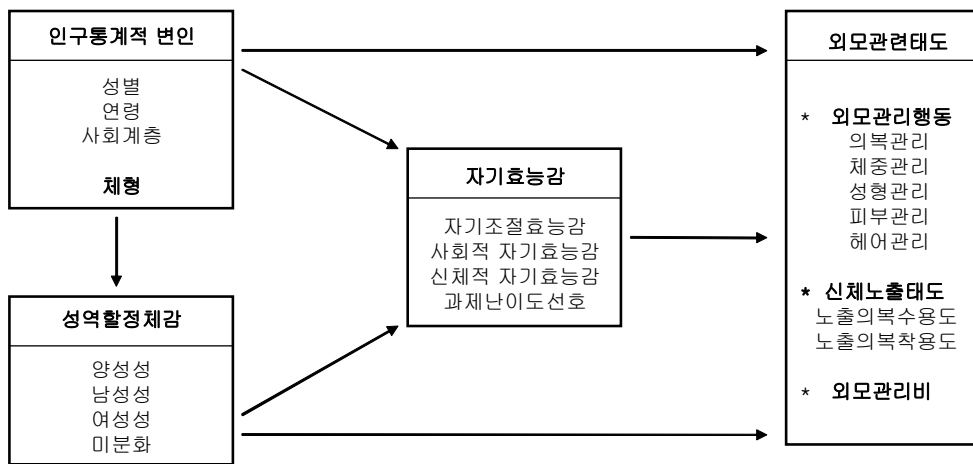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 1)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 2) 자기효능감과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4.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문제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용어정의

1) 자기효능감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Bandura, 1986; Peterson & Stunkard, 1992).

①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는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기술이 목표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확신정도로서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Bandura, 1993; Schunk, 1990; Zimmerman, 1989; 차정은, 1997).

②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의 정도로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Sherer et al., 1982).

③ 신체적 자기효능감(physical self-efficacy)

신체적 과제와 관련된 개인의 지각된 능력 수준을 의미하거나 혹은 신체와 관련하여 지각된 자신감으로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신체능력(perceived physical ability)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된 신체능력은 신체적 기술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며, 신체적 자기표현 자

신감은 기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의 수준을 말한다(Ryckman et al., 1982).

④ 과제난이도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과제난이도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고,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려하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Bandura, 1993; Latham & Locke, 1991).

2) 성역할정체감

개인적 정체감의 한 측면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각 개인의 행동과 성격에 나타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말한다.

본 연구는 Bem(1974)의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의 중간값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 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em(1974)의 성역할정체감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양성성(androgynous)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어 있는 특성을 말하며,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높은 경우를 뜻한다.

② 남성성(masculine)

남성에게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을 말하며,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보다 낮은 경우를 뜻한다.

③ 여성성(feminine)

여성에게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을 말하며,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보다 낮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은 경우를 뜻한다.

④ 미분화(undifferentiated)

한 사람이 정체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도 잘 표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은 것을 뜻한다.

3) 외모관련태도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모와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와 심리적 태도 등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행위로서 본 연구에서 외모관련태도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외모관리비로 하였다.

(1) 외모관리행동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하여 관심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모관리를 통하여 외모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외모로 만들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동이다.

① 의복관리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좀 더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체중관리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보다는 외모 가꾸기를 위하여 칼로리에 신경을 쓴다거나 식사량조절과 운동 등으로 정상적이며 일상적 범위 내에서 외모관리를 함으로 매력적인 신체를 만들어 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③ 성형관리

외견상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행해지는 수술로 신체적 기능의 장애가 아닌 자신의 정신적 부분의 만족도와 관련된 미용성형에 대한 외모관리이다.

④ 피부관리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유지시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다 젊게 보이는 피부상태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⑤ 헤어관리

모발의 특성에 따라 이에 맞는 전반적인 스타일과 관리 즉 염색, 펌,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모발 마사지 등을 하여 모발의 건강 뿐 만 아니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외모지향적인 목적을 가진 관리행동이다.

(2) 신체노출태도

① 노출의복수용도

여러 상황에서 신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한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노출의복착용도

일상생활에서 신체가 노출된 의복을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착용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3) 외모관리비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월평균 지출비용으로 의복, 체중, 피부, 화장, 헤어관리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성형관리비는 외모관리비에 고려하지 않았다.

3.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Bandura는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을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하여 실제 심리치료나 행동수정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Sherer 등(1982)은 사회적,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Ryckman 등(1982)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도구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홍혜영(1995), 김민애(2002)의 연구에서 2문항, 조기여, 유태순(1997)의 연구에서 2문항을 택하여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조기여, 유태순(1997)의 연구에서 4문항, 전준선(2006), 장경선(2006)의 연구에서 자신감 2문항, 자기조절효능감 3문항, 과제난이도선호 3문항으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조기여, 유태순(1997)의 연구에서 2문항, 이동일(2006), 정복자(2005)의 연구에서 2문항을 택하여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효능감 20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4개 문항이 제외 되었고 4개 요인의 16개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표 1>과 같다.

<표 1>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N=632)

요인 1. 자기조절효능감	요인부하량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75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70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그것을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6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61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55
전체변량(%)=25.98 누적변량(%)=25.98 고유치=4.16 a 신뢰도=.71	
요인 2.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부하량
사회적인 모임에서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R)	.76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R)	.75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R)	.68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R)	.56
전체변량(%)=14.09 누적변량(%)=40.07 고유치 =2.25 a 신뢰도=.73	
요인 3. 신체적 자기효능감	요인부하량
나는 운동에 자신이 없다.(R)	.85
나는 빨리 달리지 못한다.(R)	.82
나는 신체의 숙련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받을 때 자신이 없다.(R)	.70
전체변량(%)=8.50 누적변량(%)=48.56 고유치=1.40 a 신뢰도=.77	
요인 4. 과제난이도선호	요인부하량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R)	.75
좀 실수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62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59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R)	.53
전체변량(%)=8.05 누적변량(%)=56.61 고유치=1.29 a 신뢰도=.65	

(R): 역산 문항

요인1은 자기조절효능감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5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4.16이고 전체변량은 25.98%, a신뢰

도는 .71이었다. 요인2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6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25이고 전체변량은 14.09%, α 신뢰도는 .73이었다. 요인3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70 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40이고 전체변량은 8.50%, α 신뢰도는 .77이었다. 요인4는 과제난이도선호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3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29이고 전체변량은 8.05%, α 신뢰도는 .65이었다.

이에 자기효능감의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4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2)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은 김선영(1987)이 연구하여 유경숙(1996)이 사용한 Bem(1974)의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short form BSRI(Bem Sex Role Inventory)로서 남성성 10문항, 여성성 10문항, 중성성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남성성 척도는 .82, 여성성 척도는 .85이다.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은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에 따라 피험자들을 양성성 집단, 남성성 집단, 여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인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피험자들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이용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집단을 양성성 집단, 남성성은 높으나 여성성이 낮은 경우는 남성성 집단, 여성성은 높으나 남성성이 낮은 집단은 여성성 집단,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앙치가 모두 낮은 경우는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의 중앙치는 4.35, 여자의 중앙치는 4.90이었으며,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

()=row.%

성역할정체감 성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남	96(31.8)	61(20.2)	58(19.2)	87(28.8)	302(100.0)
여	93(28.2)	66(20.0)	86(26.1)	85(25.7)	330(100.0)
전체	189(29.9)	127(20.1)	144(22.8)	172(27.2)	632(100.0)

<표 2>에서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전체분포를 살펴보면, 양성성 집단이 29.9%였고, 미분화집단이 27.2%, 여성성이 22.8%, 남성성이 20.1%로 나타났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전경란, 2002; 전용민, 2003; 김해정, 2004; 김아날리아, 2006; 정유경, 2007)를 참고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을 택하여 총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법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와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한 20개 문항에서 요인 5개가 추출되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N=632)

요인 1. 피부관리	요인부하량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옛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79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한다.	.78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67
여드름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닌다.	.54
전체변량%=29.75 누적변량%=29.75 고유치=5.95 a 신뢰도=.78	
요인 2. 체중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사용)을 사용한다.	.74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71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69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66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63
전체변량%=8.91 누적변량%=38.66 고유치=1.78 a 신뢰도=.78	
요인 3. 의복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76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76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64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56
전체변량%=8.54 누적변량%=47.20 고유치=1.71 a 신뢰도=.72	
요인 4. 성형관리	요인부하량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87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83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63
전체변량%=6.23 누적변량%=53.43, 고유치=1.25 a 신뢰도=.76	
요인 5. 헤어관리	요인부하량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81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68
나는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62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35
전체변량%=6.06 누적변량%=59.48 고유치=1.21 a 신뢰도=.69	

요인 1은 피부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4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5.95이고 전체변량은 29.75%, α 신뢰도는 .78이었다. 요인 2는 체중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63 이상이고 모두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78이고 전체변량은 8.91%, α 신뢰도는 .78이었다. 요인 3은 의복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6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71이고 전체변량은 8.54%, α 신뢰도는 .72이었다. 요인 4는 성형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63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25이고 전체변량은 6.23%, α 신뢰도는 .76이었다. 요인 5는 헤어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35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21이고 전체변량은 6.06%, α 신뢰도는 .69이었다. 이에 외모관리행동의 변인은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헤어관리 5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4) 신체노출태도

신체노출태도는 노출의복수용도와 노출의복착용도를 조사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김인숙, 심소진, 1994; 정규진, 2004; 최현주, 2006)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노출의복수용도와 노출의복착용도는 남녀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노출의복

- 가슴노출: 목둘레를 깊게 파거나 단추 2개를 채우지 않은 셔츠
- 어깨노출: 소매 없는 셔츠
- 다리노출: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간 반바지

- 밀착된 상의: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폴티

(2) 여자 노출의복

- 가슴노출: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골선이 약간 보이는 상의
- 어깨 전체노출: 끈 달린 상의
- 넓적다리노출: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간 하의(예: 핫팬츠, 미니스커트)
- 배꼽노출: 짧은 상의

노출의복수용도에서는 5점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상황에 따라 노출의복에 대하여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노출의복착용도에서는 ‘입지 않는다’ 1점에서 ‘입는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출의복에 대한 착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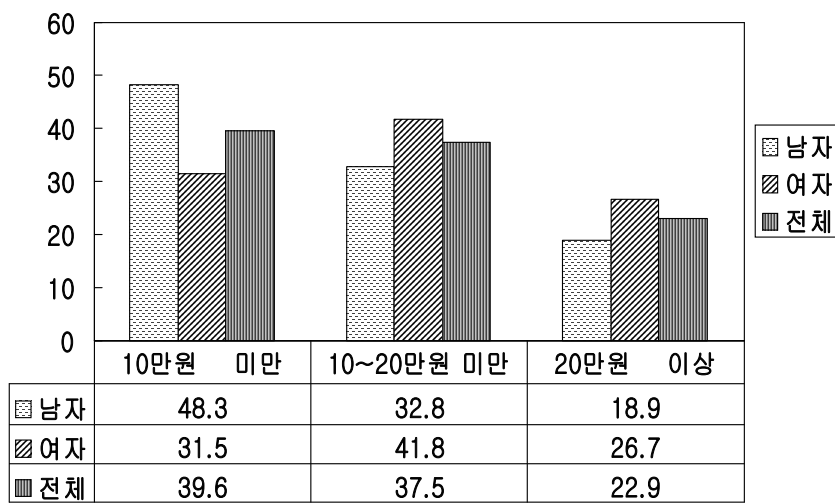
5) 외모관리비

외모관리비는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월평균 외모관리 지출비를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복, 체중, 피부, 화장, 헤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성형관리비는 외모관리비에 고려하지 않았다.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비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남녀 외모관리비의 분포

()=col.%

변인	항목	남성	여성	계
외모관리 지출비	10만원 미만	146(48.3)	104(31.5)	250(39.6)
	10~20만원 미만	99(32.8)	138(41.8)	237(37.5)
	20만원 이상	57(18.9)	88(26.7)	145(22.9)
계		302(100)	330(100)	632(100)



<그림 2> 남녀대학생의 월평균 외모관리비

남자는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월 평균지출비가 10만원 미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0~2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6)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사회계층과 체형을 조사하였다.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상류층의 상, 중, 하, 중류층의 상, 중, 하, 하류층의 상, 중, 하의 9단계로 나누었다. 체형은 키가 작고 마른 체형, 보통 체형, 살찐 체형, 키가 표준이고 마른 체형, 보통 체형, 살찐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보통 체형, 살찐 체형의 9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사회계층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빈도수가 적어 통계처리과정에서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상류층과 중의 상층을 상류층으로 정하였고, 중의 중층을 중류층으로 정하였으며, 중의 하층과 하류층을 합하여 하류층으로 정하였다. 또 체형도 통계처리과정에서 재분류하여 체형별로 마른형과 보통형, 비만형으로 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8년 9월~11월에 실시하였고, 남자대학생에게는 34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31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302부가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여자대학생은 360부가 배부되었고 그중 346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330부가 최종 통계분석자료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N(%)

변인	항목	남성	여성	계
연령	17~19세	28(9.3)	127(38.5)	155(24.5)
	20~24세	135(44.7)	168(50.9)	303(47.9)
	25~29세	128(42.4)	35(10.6)	163(25.8)
	30세 이상	11(3.6)	-	11(1.7)
사회계층	상	85(28.1)	93(28.2)	178(28.2)
	중	119(39.4)	157(47.6)	276(43.7)
	하	98(32.5)	80(24.2)	178(28.2)
체형	마른형	83(27.5)	68(20.6)	151(23.9)
	보통형	174(57.6)	186(56.4)	360(57.0)
	비만형	45(14.9)	76(23.0)	121(19.1)
계		302(100)	330(100)	632(100)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남자의 경우 17~19세가 28(9.3%)명, 20~24세가 135(44.7%)명, 25~29세가 128(42.4%)명이었다. 여자의 경우 17~19세가 127(38.5%)명, 20~24세가 168(50.9%)명, 25~29세가 35(10.6%)명이었다. 소득은 통계처리과정에서 항목들을 재분류하였다. 남자의 경우 상류층은 85(28.1%)명, 중류층은 119(39.4%)명, 하류층은 98(32.5%)명이었고, 여자는 상류층은 93(28.2%)명, 중류층은 157(47.6%)명, 하류층은 80(24.2%)명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중류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체형은 남녀 모두 보통형이 가장 높았는데, 남자는 보통형이 174(57.6%)명, 마른형이 83(27.5%)명, 비만형이 45(14.9%)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보통형이 186(56.4%)명, 비만형이 76(23.0%)명, 마른형이 68(20.6%)명으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역할정체감은 Cronbach의 α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은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외모관리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외모관리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일곱째,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자료분석 내용 및 측정방법

내용	측정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2.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의 차원을 파악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3. 성역할정체감 집단분류	신뢰도분석, 중앙치 분리법 (median-split method)
4.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	χ^2 -test
5.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외모관리비의 관계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6.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과 노출태도, 외모관리비의 관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7.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다중회귀분석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 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 자기조절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총 자기효능감은 $p < .01$ 수준에서 유의(有意)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조절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총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미선, 이정연(200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길양, 김정옥(2000)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

또 청소년이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진아(2000)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노호은(2000)의 연구에서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표 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N=632)

인구통계적 변인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총 자기효능감
성별	남		3.40	4.06	4.01	3.40	3.72
	여		3.23	4.03	3.54	3.15	3.49
	t		3.15**	.51	6.14**	4.45**	5.61**
연령	남	17~19세	3.31	7.18	3.88	3.43	3.70
		20~24세	3.33	4.06	4.04	3.35	3.69
		25세 이상	3.48	4.04	4.00	3.44	3.74
		F	1.95	.43	.36	.58	.25
	여	17~19세	3.22b	3.98	3.42ab	3.19	3.45
		20~24세	3.16b	4.05	3.67b	3.08	3.49
		25세 이상	3.57a	4.14	3.35a	3.36	3.60
		F	5.63**	1.08	3.02	2.75	1.49
사회 계층	남	상	3.48	4.09	4.04	3.49	3.78
		중	3.36	4.08	4.07	3.35	3.71
		하	3.36	4.02	3.89	3.39	3.67
		F	1.04	.24	1.15	.91	.89
	여	상	3.23	4.11a	3.58	3.19	3.53
		중	3.27	4.05ab	3.55	3.11	3.50
		하	3.13	3.92b	3.47	3.19	3.43
		F	1.19	2.33	.31	.49	1.07
체형	남	마른형	3.34	4.00ab	3.98a	3.42	3.69a
		보통형	3.44	4.16a	4.11a	3.44	3.79a
		비만형	3.32	3.78b	3.66b	3.22	3.50b
		F	.91	5.14**	4.61*	1.57	5.15**
	여	마른형	3.25	3.96	3.57ab	3.09	3.47
		보통형	3.25	4.09	3.63a	3.14	3.53
		비만형	3.16	3.96	3.29b	3.23	3.41
		F	.47	1.98	3.37*	.84	1.84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여자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 25세 이상 집단이 24세 이하 집단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목표가 있는 수행 상황에서 자신을 알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조절기술이 발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윤운성, 1999).

사회계층에 따라 남녀 모두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형에 따라서 남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총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는 신체적 자기효능감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체형별로 볼 때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보통체형이 다른체형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 마른형, 비만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의 체형을 지닌 남성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른 체형보다 자신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는 보통형과 마른체형이 비만형보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마른체형이 선호되므로 마른체형이 보통체형과 유사한 정도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인구통계적 변인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

()=row.%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성별	남	96(31.8)	61(20.2)	58(19.2)	87(28.8)	302(100)
	여	93(28.2)	66(20.0)	86(26.1)	85(25.7)	330(100)
		$\chi^2=4.48$ $p=.214$				
연령	17~19세	41(26.5)	23(14.8)	48(31.0)	43(27.7)	155(100)
	20~24세	88(29.0)	70(23.1)	58(19.1)	87(28.7)	303(100)
	25세 이상	60(34.5)	34(19.5)	38(21.8)	42(24.1)	174(100)
		$\chi^2=12.69^*$ $p=.048$				
사회계층	상	63(35.4)	38(21.3)	48(27.0)	29(16.3)	178(100)
	중	74(26.8)	56(20.3)	65(23.6)	81(29.3)	276(100)
	하	52(29.2)	33(18.5)	31(17.4)	62(34.8)	178(100)
		$\chi^2=18.81^{**}$ $p=.004$				
체형	마른형	41(27.2)	32(21.2)	38(25.2)	40(26.5)	151(100)
	보통형	112(31.1)	75(20.8)	80(22.2)	93(25.8)	360(100)
	비만형	36(29.8)	20(16.5)	26(21.5)	39(32.2)	121(100)
		$\chi^2=3.43$ $p=.754$				
전체		189(29.9)	127(20.1)	144(22.8)	172(27.2)	632(100)

* $p<.05$ ** $p<.01$

성별, 체형과 성역할정체감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과 사회계층은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연령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17~19세는 여성성 집단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계층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계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상류층은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하류층과 중류층은 미

분화 집단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즉 대학생의 연령이 20대 후반이고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향인 양성성의 특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em(1974)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성성, 여성성이 모두 강한 사람을 양성성이라 칭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적응력이 우수하며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N=632)

인구통계적변인		외모관리행동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별	남	3.14	2.35	2.48	1.98	2.70	
	여	3.51	2.67	3.10	2.86	2.70	
	t	-6.69**	-4.84**	-8.82**	-12.43**	.00	
연령	남	17~19세	3.24	2.12	2.15b	1.92	2.63
		20~24세	3.17	2.38	2.52a	2.03	2.78
		25세 이상	3.09	2.36	2.50a	1.94	2.63
		F	.70	1.33	2.13	.43	.88
	여	17~19세	3.58	2.55	3.13	2.75	2.69
		20~24세	3.45	2.72	3.11	2.92	2.68
		25세 이상	3.58	2.83	2.93	2.98	2.82
F	1.81	2.07	.71	1.71	.45		
사회 계층	남	상	3.27a	2.43	2.58	2.13	2.78
		중	3.13ab	2.32	2.47	1.96	2.68
		하	3.03b	2.30	2.40	1.89	2.65
		F	2.27	.67	.88	1.84	.48
	여	상	3.64a	2.84a	3.11	3.02a	2.85
		중	3.48ab	2.65ab	3.05	2.85ab	2.64
		하	3.42b	2.50b	3.18	2.70b	2.63
F	3.26*	3.28*	.59	2.88	2.40		
체형	남	마른형	3.29a	2.14b	2.55	2.12a	2.77
		보통형	3.16a	2.44a	2.43	1.97ab	2.72
		비만형	2.80b	2.36ab	2.53	1.79b	2.48
		F	6.20**	4.41*	.69	2.15	1.61
	여	마른형	3.52	2.01b	3.23	2.74	2.69
		보통형	3.54	2.77a	3.09	2.95	2.74
		비만형	3.42	3.00a	3.01	2.76	2.60
F	1.02	29.31**	1.11	1.20	.81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성별에 따라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에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에서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

관리나 신체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2006)의 연구 및 하선정(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여학생이 더 높다고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연령별로 볼 때 남녀 모두 외모관리행동은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모두 대학생이므로 외모관리행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적인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계층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는 여자의 경우 의복관리와 체중관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여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순으로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관리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사회계층별로 중 · 하류층보다 상류층이 더 많은 피부관리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 외모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할 때 높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체형별로 남자는 의복관리 및 체중관리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여자는 체중관리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마른형 및 보통형이 비만형보다 의복관리를 더 많이 하였고, 보통형 및 비만형이 마른형보다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른형의 남자는 의복관리 정도가 높고 비만형의 남자는 체형관리 정도가 높으며 보통형은 체중관리 및 의복관리를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만형은 의복관리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자신이 사회적 표준체형보다 비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히 의복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는 체중관리에서 비만형과 보통형이 마른형보다 체중관리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보통형의 체중관리 평균치는 2.77로서 남자 보통형의 2.44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에서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면서 체중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조선진(1996), 김용주(1999)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대체로 객관적 비만수준보다 자신을 더 과체중으로 인식하여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 내용과 정근백 외(1995)의 연구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정상체중인 사람도 체중조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 (N=632)

인구통계적 변인		노출의복수용도	학교에 갈 때	이성친구를 만날 때	모임에 갈 때	휴가에 갈 때	총수용도
성별	남		2.94(3)	3.21(2)	3.09(2)	3.66(1)	3.24
	여		2.74(3)	3.09(2)	2.92(2)	3.83(1)	3.14
	t		3.32**	2.14*	3.01**	-2.80**	1.73
연령	남	17~19세	2.98	3.03	2.97	3.54	3.16
		20~24세	2.95	3.20	3.09	3.62	3.21
		25세 이상	2.92	3.25	3.10	3.73	3.25
		F	.08	.28	.33	1.10	.27
	여	17~19세	2.87a	3.12	3.03a	3.83	3.21a
		20~24세	2.76a	3.08	2.85ab	3.81	3.13ab
		25세 이상	2.22b	3.04	2.79b	3.88	2.98b
		F	12.20**	.31	3.24*	.15	3.14*
사회계층	남	상	3.11a	3.37	3.26a	3.76	3.37a
		중	2.93ab	3.14	3.01b	3.65	3.18b
		하	2.81b	3.17	3.03b	3.59	3.15b
		F	3.44*	2.32	2.95	.92	2.96
	여	상	2.70	3.04	2.85	3.89	3.12
		중	2.73	3.13	2.90	3.79	3.14
		하	2.82	3.09	3.02	3.84	3.19
		F	.67	.58	1.67	.74	.50
체형	남	마른형	3.03	3.26	3.16	3.73	3.30
		보통형	2.94	3.25	3.10	3.65	3.23
		비만형	2.79	3.01	2.91	3.57	3.07
		F	1.31	1.81	1.52	.66	1.68
	여	마른형	2.72	3.05	2.78	3.72	3.07
		보통형	2.80	3.13	2.96	3.88	3.19
		비만형	2.62	3.03	2.94	3.80	3.10
		F	1.85	.91	1.98	1.36	1.92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1), (2), (3)은 표의 paired t-test 결과

성별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는 p<.05, p<.01 수준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학교에 갈 때, 이성친구를 만날 때, 모임에

갈 때에 여자보다 노출의복에 대하여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가 갈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노출의복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다. 이는 휴가 갈 때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이성의 외모에 대해 보다 관대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이 같은 동성끼리의 신체노출된 의복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여성과 남성의 행동에 있어 사회적인 수용의 차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순구, 박정순(1990)의 연구와 정숙성과 탐미성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이명희(1982)의 연구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체노출의 허용정도가 여자에게 더 엄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에서 남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학교에 갈 때, 모임에 갈 때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학교에 갈 때 연령이 20대 후반이 17~19세 및 20대 전반보다 노출의복에 대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강혜원(1979), 김순구, 박정순(199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의복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사회계층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는 남자는 학교에 갈 때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사회계층별 차이는 학교에 갈 때 상류층이 중류층, 하류층보다 노출의복에 대하여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별 총노출의복수용도에서 여자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17~19세가 노출의복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20~24세, 25세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20대 미만일수록 노출의복의 수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숙한 의복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강혜원(1979), 김순구, 박정순(199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연령이 낮은 젊은층은 자신의 신체조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노출의복에 대한 수용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의 순위를 보면, 남녀 모두 휴가 갈 때 가장 노출의복수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이성친구를 만날 때, 모임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순이었다. 즉 휴가 갈 때에 신체가 노출된 의복을 착용한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하였으나, 학교에서는 노출의복수용도에 대하여 남녀대학생 모두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

(N=632)

인구통계적 변인		노출의복 착용도	가슴노출	어깨노출	다리노출	남: 밀착된 상의 여: 배꼽노출	총 착용도
성별	남		2.17(1)	2.03(2)	1.91(2)	1.85(3)	1.99
	여		2.00(2)	2.28(2)	2.62(1)	1.33(3)	2.06
	t		2.12*	-3.12**	-8.37**	7.64**	-1.19
연령	남	17~19세	2.18	2.04	2.07	1.96	2.06
		20~24세	2.21	2.10	1.88	1.89	2.02
		25세 이상	2.12	1.96	1.91	1.79	1.94
		F	.25	.73	.39	.51	.48
	여	17~19세	1.99	2.25	2.69a	1.35	2.07
		20~24세	2.01	2.31	2.64ab	1.34	2.08
		25세 이상	2.00	2.20	2.29b	1.20	1.92
		F	.02	.24	1.90	.67	.82
사회 계층	남	상	2.20	2.05	2.08	1.93	2.06
		중	2.17	2.03	1.87	1.85	1.98
		하	2.13	2.02	1.81	1.79	1.94
		F	.10	.02	1.76	.46	.67
	여	상	2.16a	2.40	2.69	1.33	2.15a
		중	1.99ab	2.27	2.64	1.32	2.06ab
		하	1.84b	2.14	2.50	1.33	1.95b
		F	2.68	1.52	.69	.01	1.88
체형	남	마른형	2.27a	1.86	1.87	1.88a	1.97
		보통형	2.20a	2.11	1.91	1.93a	2.04
		비만형	1.87b	2.02	2.00	1.51b	1.85
		F	2.50	1.89	.24	3.06*	1.12
	여	마른형	1.76b	2.44a	3.10a	1.40a	2.18a
		보통형	2.13a	2.34a	2.73b	1.36ab	2.14a
		비만형	1.91ab	1.96b	1.93c	1.18b	1.75b
		F	4.49*	5.50**	25.67**	2.21	11.63**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1), (2), (3)은 표의 paired t-test 결과

성별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의 차이를 살펴볼 때 모든 변인에서 신체 노출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가슴노출의복을 많이 착용하였고, 여자는 어깨노출과 다리노출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사회계층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계층별 차이에서 여자의 가슴노출 의복 착용도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순으로 착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형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는 남자의 경우 밀착된 상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여자는 가슴노출, 어깨노출, 다리노출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는 보통형, 마른형, 비만형 순으로 밀착된 상의를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의 체형이 밀착된 상의를 입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는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보통형이 가장 많이 입었고, 그 다음 비만형, 마른형 순으로 착용하였다. 즉 가슴은 여자의 신체를 대표하는 부위중 하나로서 어느 정도 가슴에 볼륨감이 있는 여자들이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였고, 반면에 마른형과 비만형은 가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자는 어깨 전체가 노출된 의복을 마른형과 보통형의 체형이 비만형보다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만도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체형의 변화로 인하여 어깨노출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마른형, 보통형, 비만형 순으로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도가 높을수록 여자들은 다리노출을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형에 따른 전체적인 총노출의복착용도에서 여자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마른형, 보통형이 신체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비만형은 노출의복착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그 부위의 의복 노출을

통하여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규진(2004)의 연구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신체부위에 있어서는 신체노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높았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이영주, 임숙자(2002)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부위와 의복이 노출된 부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를 지지한다.

성별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남자는 가슴노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어깨노출, 다리노출, 밀착된 상의 순이었다. 여자는 다리노출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어깨노출, 가슴노출, 배꼽노출 순이었다. 즉 남자는 목둘레를 깊게 파거나 단추를 2개 정도 채우지 않아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여자는 핫팬츠나 미니스커트와 같이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가서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는 밀착된 상의와 여자는 배꼽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수지(1993)의 연구에서 신체에 만족할수록 미니스타일과 유행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나타낸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부위별 신체만족도와 상관없이 배꼽노출과 같은 노출수위가 높은 의복에 대한 착용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정규진(2004)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의복이 우리의 문화적 규범에 아직까지는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와의 관계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효능감 (N=632)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자기조절 효능감	남	3.71a	3.53ab	3.24bc	3.05c	19.37**
	여	3.40a	3.36a	3.29a	2.88b	12.21**
사회적 자기효능감	남	4.31a	4.14a	4.13a	3.68b	13.81**
	여	4.17a	4.25a	4.06a	3.69b	15.91**
신체적 자기효능감	남	4.23a	4.14a	4.01ab	3.67b	6.74**
	여	3.68ab	3.73a	3.50ab	3.28b	3.51*
과제난이도 선호	남	3.71a	3.54ab	3.38b	2.98c	18.31**
	여	3.39a	3.29ab	3.05bc	2.88c	10.99**
총자기효능감	남	3.99a	3.84ab	3.69b	3.35c	27.80**
	여	3.66a	3.66a	3.47b	3.18c	23.34**

*p<.05 **p<.01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신체적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총자기효능감은 남녀 모두 $p<.05$,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다른 성역할집단에 비하여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분화 집단은 낮은 편이었다. 여자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기술이 효과적이라는 확신정도를 양성성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남녀대학생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미이(2000)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남녀 모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마칠 때까지 노력하려는 의지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의 정도가 남녀 모두 미분화 집단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양성성, 남성성 집단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여자는 남성성 집단이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화 집단은 남녀 모두에게서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남자는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여자는 남성성 집단이 비교적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능력을 인정하며 신체적으로 지각된 자기표현의 자신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역할이 여성적인 여고생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낮게 지각한다는 홍선옥, 표내숙((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과제난이도선호의 차이에서는 양성성이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분화 집단이 남녀 모두 가장 낮았다. 즉 양성성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남녀대학생은 어떤 수행 상황에 있어서 목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선호하며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최미이, 2000)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총자기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여자는 양성성, 남성성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분화 집단은 남녀 모두에게서 총자기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가 남자는 양성성 집단이, 여자는 양성성, 남성성 집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N=632)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외모관리행동						
의복관리	남	3.42a	3.11ab	3.06b	2.90b	7.64**
	여	3.62	3.52	3.52	3.37	2.47
체중관리	남	2.48a	2.25ab	2.09b	2.44ab	3.86*
	여	2.76	2.79	2.63	2.51	1.67
성형관리	남	2.32	2.54	2.49	2.61	1.82
	여	3.19	3.02	3.13	3.04	.70
피부관리	남	2.07	1.90	1.86	2.03	.95
	여	3.09a	2.87ab	2.77ab	2.69b	3.47*
헤어관리	남	2.90a	2.88a	2.49b	2.49b	4.87**
	여	2.89a	2.60b	2.70ab	2.56b	2.86*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표 13>을 보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복관리는 남자에게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에게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의복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양성성을 가진 남자였으며,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이 의복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선재, 백선영, 2000; 최지성, 2002; 이지현, 2004)에서 양성성 유형을 가진 남성과 청소년들은 특히 유행하는 의복에 관심이 많고 외모관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체중관리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은 남자에게만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여자에게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양성성 집단인 남자는 다른 집단보다 체중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2004)의 연구에서도 양성성 집단이 외모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성형관리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피부관리는 남자에게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게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양성성 집단인 여성이 피부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 집단이 가장 적게 피부관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 현대인이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화장품은 물론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다양하게 지닌 사람들의 적극적인 생활양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헤어관리는 남녀 모두 $p < .05$, $p < .01$ 수준에서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양성성이 다른 집단보다 헤어관리 정도가 높았다.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신체노출태도

(N=632)

신체노출태도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남	여						
노출수용도	학교	남		2.96	2.86	3.02	2.93	.45	
		여		2.73	2.84	2.67	2.75	.74	
	이성친구	남		3.22	3.11	3.38	3.18	1.18	
		여		3.10ab	3.22a	2.96b	3.10ab	2.27	
	모임	남		3.15	2.91	3.18	3.17	1.56	
		여		2.92ab	3.03a	2.77b	2.98a	2.48	
	휴가	남		3.64	3.62	3.81	3.62	.85	
		여		3.90	3.76	3.83	3.80	.62	
	총수용도	남		3.24	3.13	3.35	3.20	1.15	
		여		3.16	3.21	3.06	3.16	1.27	
	노출의복착용도	가슴노출	남		2.28ab	2.46a	1.86b	2.03ab	4.58**
			여		2.14ab	2.29a	1.81b	1.82b	5.23**
어깨노출		남		2.04	2.20	1.84	2.02	1.23	
		여		2.27ab	2.64a	2.10b	2.18b	4.27**	
다리노출		남		1.86	2.11	1.79	1.90	1.12	
		여		2.60ab	2.86a	2.70ab	2.38b	2.68*	
남: 밀착된 상의 여: 배꼽노출		남		1.86	1.90	1.81	1.83	.10	
		여		1.34	1.42	1.24	1.32	.87	
총착용도				2.01ab	2.17a	1.83b	1.95ab	2.15	
				2.09b	2.30a	1.97b	1.92b	5.0**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노출수용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노출의복착용도는 가슴노출과 어깨노출의 경우 p<.01 수준에서, 다리노출은 여자의 경우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남성성 집단이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는 여성성 집단이 여자는 미분화와 여성성 집단이 가슴 노출된 의복을 가장 적게 착용하였다. 이는 목둘레가 깊게 파인 상의를 많이 착용한 집단이 남성성 성향을 가진 남녀 대학생이며, 여성성 성향을 가진 남녀는 가슴노출의복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깨노출은 남자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게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성 집단인 여자는 어깨가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미분화와 여성성 집단인 여자는 어깨노출 의복의 착용도가 가장 낮았다.

또 다리노출은 여자에게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성 집단인 여자는 무릎 위 20cm 올라간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등의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미분화 집단이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가장 낮았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 차림에 대하여 정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남성성인 집단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역할에 보수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의복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였던 선행연구(강혜원, 1979) 결과를 지지한다.

밀착된 상의와 배꼽노출 의복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는 유의적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체적인 노출의복착용도에서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성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신체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 (N=632)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외모관리비	남	1.77	1.80	1.66	1.60	1.22
	여	2.18a	2.09ab	1.78b	1.76b	7.13**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월평균 외모관리비는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는 남자에게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에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모관리 지출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양성성이었으며, 그 다음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현(2004)의 연구에서 양성성 집단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므로 외모관리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외모관리방법에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외모관리비 사용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의적 영향을 주었고, 양성성의 여성들이 외모관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여성들도 여성적인 특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향이 선호되면서 양성성을 지닌 여성들이 피부관리, 화장, 헤어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관련성

1)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상관관계 (N=632)

자기효능감		외모관리 행동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자기조절 효능감	남	.123*	-.048	-.243**	-.143*	.009
	여	.209**	.059	.017	.162**	.067
사회적 자기효능감	남	.065	-.099	-.226**	-.101	.019
	여	.117*	.052	-.048	.154**	.090
신체적 자기효능감	남	.069	-.021	-.214**	-.065	.011
	여	.009	-.032	-.089	-.006	.006
과제난이도 선호	남	.053	-.048	-.263**	-.110	-.085
	여	.019	.065	-.083	.103	.029
총자기효능감	남	.104	-.072	-.324**	-.141*	-.014
	여	.123*	.044	-.087	.141*	.066

*p<.05 **p<.01

자기조절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계에서 남자의 경우 의복관리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성형관리, 피부관리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자는 자기조절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계에서 의복관리와 피부관리

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남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복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성형관리와 피부관리는 적게 하였다. 여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와 피부관리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조기여, 유태순(1997)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피부관리를 더 많이 하였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고 의복을 통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특히 자신감이 강한 여학생일수록 여러 상이한 의복들을 실험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즐기며 의복의 선택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론을 지지한다(Humphrey, Klaasen & Creekmore, 1971).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성형관리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여자는 의복관리, 피부관리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남자일수록 성형관리를 적게 하는 편이었으며, 여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와 피부관리 행동이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한 태도를 사회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과 대인관계에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자신을 꾸미는데 의복과 피부관리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볼 때 남자인 경우 성형관리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를 적게 하는 편이었다. 이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형으로의 신체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과제난이도선호와의 관계에서도 남자의 경우 성형관리와 부적 상관

을 보여, 난이도가 어려운 과제를 선호할수록 성형관리의 외모관리행동을 적게 하는 편이었다.

총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볼 때 남자의 경우 총자기효능감은 성형관리 및 피부관리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여자는 의복관리, 피부관리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떤 과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 피부관리 등의 신체수정에 관심이 낮았으나, 여자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와 피부관리 등의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경란(200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의복으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려 하나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변형을 통해 외모를 수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남자들은 모든 자기효능감 변인이 성형관리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높은 남자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기효능감과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자기효능감과 신체노출태도와의 상관관계

(N=632)

신체노출태도 자기효능감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					노출의복착용도				
		학교	이성 친구	모임	휴가	총 수용도	가슴 노출	어깨 노출	다리 노출	남:밀착된 상의 여:배꼽 노출	총 착용도
자기조절 효능감	남	.020	-.014	-.014	.069	.018	.000	-.044	-.075	.009	-.037
	여	-.033	.026	-.071	.064	-.005	.140*	.069	.039	-.024	.084
사회적 자기효능감	남	.089	.104	.075	.075	.101	.065	.031	.009	.069	.058
	여	-.091	.009	-.065	.066	-.028	.174**	.062	.110*	.022	.135*
신체적 자기효능감	남	.003	.046	.011	.031	.027	-.040	-.023	-.034	.033	-.022
	여	.026	.002	-.053	.021	-.001	.086	.008	.026	.015	.047
과제난이도 선호	남	.065	.019	.049	.017	.044	.003	-.124*	-.126*	.017	-.077
	여	.050	.078	.031	.100	.084	.074	-.026	-.072	.007	-.012
총 자기효능감	남	.059	.055	.041	.064	.065	.006	-.054	-.076	.044	-.027
	여	-.009	.041	-.064	.091	.019	.178**	.040	.037	.009	.094

*p<.05 **p<.01

<표 17>에서 자기효능감과 상황별 노출수용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자기효능감과 노출의복착용도와의 관계에서는 p<.05, p<.01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자기조절효능감과 노출의복착용도와의 관계에서 여자는 가슴노출과 정적 상관을 보여서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슴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즉 목표설정에서 자기조절 기술이 높을수록 여자는 상의의 목둘레가 깊게 파여서 가슴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여자의 경우 가슴노출과 다리노출이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가슴과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착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상황에서의 사회적 자신감이 많은 여자는 가슴이 노

출된 의복과 숏팬츠나 미니스커트와 같은 넓적다리가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노출의복착용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제난이도선호는 노출의복착용도와 관계에서 남자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어깨노출과 다리노출에서 부정적 상관이 있었다.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어깨와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즉 어떤 수행 상황에 있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할수록 소매가 없어서 어깨가 노출된 상의나 무릎위로 올라간 반바지로 인하여 다리가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자기효능감은 노출의복착용도와 관계에서 여자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가슴노출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여성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특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실성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슴이 노출된 의복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과 전체적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노출의복착용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노출의복착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와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와의 상관관계
(N=632)

자기효능감		외모관리비
자기조절 효능감	남	-.041
	여	.165**
사회적 자기효능감	남	.021
	여	.188**
신체적 자기효능감	남	.009
	여	-.001
과제난이도 선호	남	-.011
	여	.139*
총자기효능감	남	-.005
	여	.168**

*p<.05 **p<.01

자기조절효능감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와의 관계에서 남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 외모관리비와 $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의 지출이 많은 편이었다. 즉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의 과제수행에 있어 자기조절 기술이 높은 여자는 외모가꾸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여자에게서만 외모관리비와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외모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남녀 모두에게서 외모관리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제난이도선호와 외모관리비는 남자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여자는 외모관리비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어려운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자인 경우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는 여자에게서만 $p <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떤 수행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높은 여자일수록 외모관리비가 많은 편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비가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의 조건이 아름다운 외모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남녀대학생의 성별, 연령, 사회계층,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이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 <표 20>, <표 21>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R^2 이 0.1 미만이면서 간접효과가 없는 모형은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독립변인 중 성별은 여성이 1점, 남성이 0점을 주어 가변수를 사용하였고, 성역할정체감에서는 양성성 집단이 1점, 기타집단은 0점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총외모관리행동은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헤어관리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표 19>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3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의복 관리	성별	.340	.236	5.254**	R ² =.136 F=12.216**
	사회계층	.071	.127	3.387**	
	성역할정체감	.248	.157	4.010**	
	자기조절 효능감	.143	.134	3.104**	
체중 관리	성별	.424	.250	5.345**	R ² =.065 F=5.419**
	연령	.035	.138	3.015**	
	사회계층	.055	.085	2.160*	
	성역할정체감	.166	.089	2.191*	
성형 관리	성별	.526	.280	6.309**	R ² =.152 F=13.974**
	과제난이도 선호	-.159	-.121	-2.809**	
	신체적 자기효능감	-.096	-.100	-2.364*	
피부 관리	성별	.897	.452	10.667**	R ² =.228 F=23.043**
	사회계층	.096	.126	3.553**	
	성역할정체감	.239	.110	2.974**	
헤어 관리	사회계층	.053	.079	1.988*	R ² =.036 F=2.912**
	성역할정체감	.295	.156	3.753**	
	과제난이도 선호	-.116	-.095	-2.069*	
외모 관리비	성별	.753	.181	3.946**	R ² =.099 F=8.557**
	연령	.079	.126	2.803**	
	사회계층	.371	.232	6.046**	
	사회적 자기효능감	.340	.109	2.406*	
총외모 관리행동	성별	.436	.351	7.961**	R ² =.168 F=15.694**
	사회계층	.057	.120	3.245**	
	성역할정체감	.204	.150	3.898**	
	과제난이도 선호	-.074	-.085	-1.979*	

*p<.05 **p<.01 성별(가변수: 1=여성, 0=남성),
성역할정체감(가변수: 1=양성성, 0=기타집단)

<표 19>에서 종속변인은 외모관리행동 5개, 총외모관리행동 및 외모관리비이며,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사회계층, 성역할정체감, 자기효능감 4개 변인으로서 총 8개의 독립변인을 사용하였다.

<표 20>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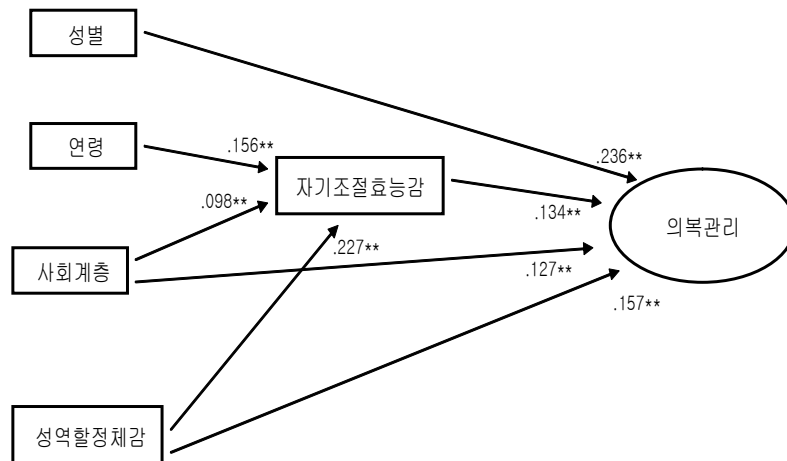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자기조절 효능감	연령	.032	.156	3.519**	R ² =.099 F=17.245**
	사회계층	.051	.098	2.586*	
	성역할정체감	.334	.227	5.971**	
사회적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275	.189	4.818**	R ² =.043 F=6.991**
신체적 자기효능감	성별	-.437	-.223	-4.952**	R ² =.072 F=12.138**
	성역할정체감	.253	.118	3.066**	
과제난이도 선호	성별	-.212	-.148	-3.336**	R ² =.095 F=16.429**
	성역할정체감	.389	.250	6.548**	

*p<.05 **p<.01 성별(가변수: 1=여성, 0=남성),
성역할정체감(가변수: 1=양성성, 0=기타집단)

의복관리에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성역할정체감, 자기조절효능감, 사회계층 순이었다(beta=.236, .157, .134, .127).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3.6%였다. 즉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일수록 자기조절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복관리를 많이 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 의복관리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과 <표 20>을 볼 때 자기조절효능감에는 연령(beta=.156), 사회계층(beta=.098), 성역할정체감(beta=.227)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R²=.099). 즉 연령, 사회계층, 성역

할정체감은 자기조절효능감을 통하여 의복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윤운성(1999)의 연구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계층에 대하여 전길양, 김정옥(2000)과 장미선, 이정연(2003)의 연구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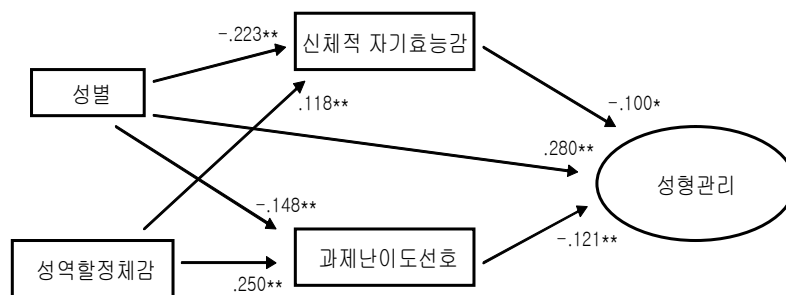


*p<.05, **p<.01

<그림 3> 의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체중관리에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 연령, 성역할정체감, 사회계층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250, .138, .089, .085). 4개 변인의 설명력은 6.5%로서 낮은 편이었다($R^2=.065$). 즉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일수록 체중관리를 많이 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관리에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과제난이도선호, 신체적 자기효능감 순이었다(beta=.280, -.121, -.100).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5.2%였다. 즉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형관리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성형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 성형관리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와 <표 20>을 볼 때 신체적 자기효능감에는 성별(beta=-.223), 성역할정체감(beta=.118)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R^2=.072$), 과제난이도선호에는 성별(beta=-.148), 성역할정체감(beta=.250)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R^2=.095$). 즉 성별, 성역할정체감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를 통하여 성형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 $p < .05$, ** $p < .01$

<그림 4> 성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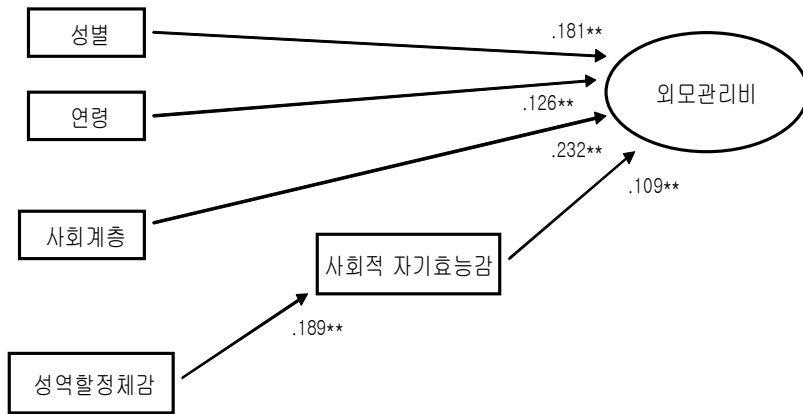
피부관리에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사회계층, 성역할정체감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452, .126, .110), 3개 변인의 설명력은 22.8%였다. 즉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성역할정체감

이 양성성일수록 피부관리를 더 많이 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 피부관리는 R^2 이 0.1 이상이었으나 간접효과가 없어서 그림으로 모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헤어관리에는 성역할정체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이 과제난이도선호, 사회계층 순이었다(beta=.156, -.095, .079). 3개 변인의 설명력은 3.6%로서 낮은 편이었다(R^2 =.036). 즉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고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

<표 19>에서 외모관리비에는 사회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이 성별, 연령, 사회적 자기효능감 순이었다(beta=.232, .181, .126, .109). 4개의 변인의 설명력은 9.9%였다. 즉 사회계층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에 비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모관리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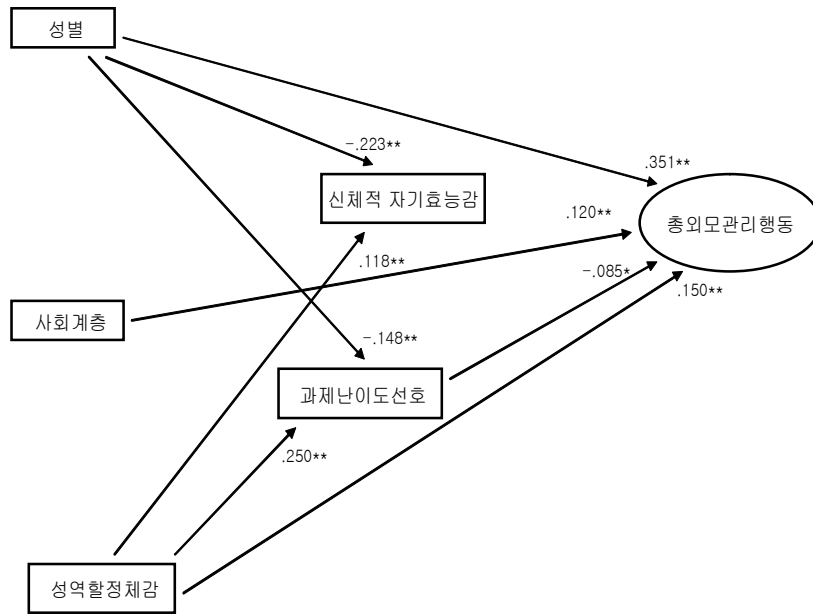
외모관리비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와 <표 20>을 볼 때 사회적 자기효능감에는 성역할정체감(beta=.189)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R^2 =.043). 즉 성역할정체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외모관리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p<.05, **p<.01

<그림 5> 외모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표 19>에서 총외모관리행동에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이 성역할정체감, 사회계층, 과제난이도선호 순이었다(beta=.351, .150, .120, -.085).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6.8%였다. 즉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며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은 더 많이 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총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과 <표 20>을 볼 때 과제난이도선호에는 성별(beta=-.148), 성역할정체감(beta=.250)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서($R^2=.095$) 성별, 성역할정체감은 과제난이도선호를 통하여 총외모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p<.05, **p<.01

<그림 6> 총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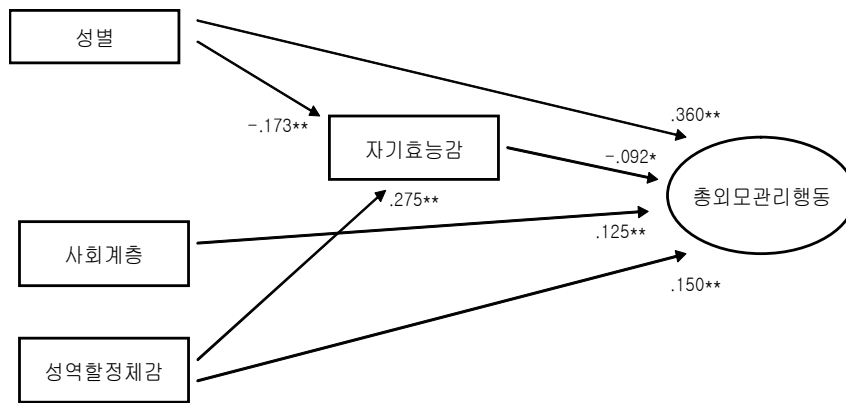
<표 21> 총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자기효능감	성별	-.180	-.173	-3.977**	R ² =.135 F=24.546**
	성역할정체감	.313	.275	7.369**	
총외모관리행동	성별	.447	.360	8.324**	R ² =.165 F=24.673**
	사회계층	.059	.125	3.390**	
	자기효능감	-.109	-.092	-2.340*	

*p<.05 **p<.01 성별(가변수: 1=여성, 0=남성)
 성역할정체감(가변수: 1=양성성, 0=기타집단)

<표 21>에서 성별, 연령, 사회계층, 성역할정체감, 자기효능감이 총외모관리행동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회귀분석의 F값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외모관리행동에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이 성역할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계층 순이었다(beta=.447, .203, -.109, .059).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6.5%였다. 즉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며 사회계층이 상류층일수록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인과모형을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7>과 같다. <그림7>과 <표 21>을 볼 때 자기효능감에는 성별(beta=-.173), 성역할정체감(beta=.275)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서($R^2=.135$),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외모관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 $p < .05$, ** $p < .01$

<그림 7> 자기효능감이 총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이상의 결과에서 남녀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은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 사회계층, 연령도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모관리행동 중에서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헤어관리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관리도가 더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체중관리를 많이 하였다. 또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하였고, 의복관리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였다. 반면에 성형관리와 헤어관리는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많이 하였으며, 특히 성형관리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많이 하였다. 또 외모관리비 사용은 여자이면서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이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련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련태도와의 관계를 밝히며,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련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며,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시기는 2008년 9월~11월에 실시하였고, 피험자는 서울지역의 남녀대학생 632명으로서 남자 302명, 여자 330명이었다.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와의 관계

첫째,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다. 여자는 연령에 따라 자기조절효능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25세 이상 집단이 24세 이하 집단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체형에 따른 차이에서 보통체형의 남자는 비만형 및 마른체형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비만형이 다른 유형보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른 체형보다 보통의 체형을 지닌 남성이 자신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마른체형을 선호하므로 마른체형이 보통체형과 유사한 정도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둘째, 17~19세는 여성성 집단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25세 이상은 양성성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류층은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하류층과 중류층은 미분화 집단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즉 대학생의 연령이 20대 후반이고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란 관점에서 우세하며 바람직한 성향인 양성성의 특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관리나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여자가 더 높다고 해석된다.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는 상, 중, 하류층의 순으로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 남자의 경우 마른체형이 체중관리도가 낮았고, 비만형은 마른형 및 보통형보다 의복관리 정도가 더 낮았다. 즉 자신이 사회적 표준체형보다 비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히 의복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도 마른형이 비만형과 보통형보다 체중관리 정도가 더 낮았다. 이것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에서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면서 체중관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상황별 노출의복수용도에 대하여 휴가, 모임, 등교, 이성친구를 만날 때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휴가 갈 때에 신체 노출의복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등교시의 노출의복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는 20대 후반이 17~19세 및 20대 전반보다 노출의복수용도가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의복 정숙성을 중요시한다고 해석된다. 즉 연령이 낮은 젊은층은 자신의 신체조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노출의복에 대한 수용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상류층은 등교시의 노출의복 수용도가 다른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노출의복착용도의 순위를 보면, 남자는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여자는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는 밀착된 상의와 여자는 배꼽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는 낮게 나타났다. 남자는 보통체형이 비만형 및 마른형보다 밀착된 상의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여자는 가슴노출된 의복을 보통체형이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어깨 전체가 노출된 의복은 비만형보다 마른형과 보통형이 더 많이 착용하였다. 또 여자는 다리가 노출된 의복은 마른형, 보통형, 비만형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그 부위의 의복 노출을 통하여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부위별 신체만족도와 상관없이 배꼽노출과 같은 노출수위가 높은 의복에 대한 착용의 횟수가 낮은 것은 이러한 의복이 우리의 문화적 규범에 아직까지는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와의 관계

첫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남녀 모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여자는 남성성 집단이 비교적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신체능력을 인정하며 신체적으로 지각된 자기표현의 자신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과제난이도선호는 양성성 집단이 남녀 모두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 집단이 남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피부관리는 여자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남자는 의복관리와 체중관리를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다. 헤어관리는 남녀 모두 양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하였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이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지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화장은 물론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다양하게 지닌 사람들의 적극적인 생활양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남녀 모두 남성성 집단이 가슴이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여자의 경우 어깨노출과 다리노출 의복은 남성성 집단이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출 차림에 대하여 정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남성성인 집단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역할에 보수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의복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양성성의 여성이 외모관리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여성들도 여성적인 특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향이 선호되면서 양성성을 지닌 여성들이 피부관리, 화장, 헤어관리 등을 통해 외모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 신체노출태도 및 외모관리비의 관련성

첫째, 남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성형관리와 피부관리는 적게 하였다. 여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

을수록 의복관리와 피부관리를 많이 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를 적게 하는 편이었으며, 여자는 의복관리와 피부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자신에 대한 신념이 강한 태도를 사회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과 대인관계에서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자신을 꾸미는데 의복과 피부관리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를 적게 하는 편이었다. 이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형으로의 신체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높은 남자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볼 때 남자의 경우 총자기효능감은 성형관리 및 피부관리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여자는 의복관리, 피부관리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떤 과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남자는 성형관리, 피부관리 등의 신체수정에 관심이 낮았으나, 여자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와 피부관리 등의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자는 자기조절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슴이 노출된 의복의 착용이 많은 편이었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슴과 다리가 노출된 의복착용도가 높았다. 남자는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어깨와 다리가 노출된 의복을 착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셋째, 여자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비의 지출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자신감이 높은 여자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로 외모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의 조건이 아름다운 외모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4) 외모관련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여자이면서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사회계층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복관리를 많이 하였고($R^2=.136$),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체형관리를 많이 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R^2=.065$). 또 과제난이도선호와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성형관리를 많이 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성형관리를 많이 하였다($R^2=.152$).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일수록 피부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28$). 성역할정체감에서 양성성이며, 과제난이도선호가 낮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였다($R^2=.036$). 여자이면서 연령이 높고, 사회계층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R^2=.099$). 여자이면서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며 사회계층이 높고, 과제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총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 5개 변인이 총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6.8% 였다($R^2=.168$).

종합적으로 외모관리행동 중에서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헤어관리는 사회계층이 높고,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인 집단이 더 많이 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많이 하였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는 더 많이 하였고, 의복관리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많이 하였다. 반면에 성형관리와 헤어관리는 과제

난이도선호가 낮을수록 많이 하였으며, 특히 성형관리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많이 하였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이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다. 외모관리비는 여자이면서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많이 지불하였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출의복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20대 후반이 노출수용도가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변수로 사용한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은 남녀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관리비, 노출의복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마케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외모관련태도에 차이가 나타난 연구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심리적 특성이 남녀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효능감 또는 성역할정체감의 심리적 특성은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복, 체중, 성형, 피부나 헤어관리 등을 통하여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소비행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편이었으나 의복관리는 남녀 모두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상황에서 유능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향상시키는 데는 의복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객을 끌기 위해서는 새롭고 특이한 디자인과

색상을 가진 의복과 고급스러운 의복 등 의복에 대한 유행성과 흥미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성 집단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의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제품과 화장품 등 외모관리제품의 마케팅에서 양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마케팅 활동에서 강한 남성적 이미지와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강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여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남성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외모관리 방안을 개발하여 남성들이 외모관리를 남성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또한 양성성 집단이 피부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바른 피부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적 피부관리에 대한 미용강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보다 정확한 피부상태 측정을 위해 피부를 진단 할 수 있는 도구 및 기준자료를 제공하여 피부유형 상태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피부타입별 화장품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남자가 피부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직은 대부분이 피부관리실이 여성을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드나들기 힘든 상황과 획일적이고 단순한 남성화장품 등이 그러한 원인 중에 속할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전문적 관리나 지식보다는 간편하고 손쉬운 관리로부터 실천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피부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이해시켜 스스로 피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야 하겠다. 다양하고 기능적인 남성화장품의 개발을 통해 남성들이 자신의 피부상태에 따른 바른 피부건강관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부지식이나 관리법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 및 홍보자

료개발에 노력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소비자 수용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한 특성들은 그것이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를 떠나서 개인의 성격특성을 표현해 준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외모관련태도별로 차이가 있음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한 성역할을 가진 성의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나 신제품 광고 등의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관측활동을 한다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출의 시기와 맞물려 날씬한 체형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선호 분위기와 함께 자신이 더욱 마른체형으로 보이기를 원하므로 의복을 디자인 할 때 좀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과 패턴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원하는 신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비만형은 의복관리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신이 사회적 표준체형보다 비만체형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히 의복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올바른 체형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체중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향상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의 모색 및 효과를 제시하고 신뢰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체중감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다이어트 관련 사업까지 접목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과제난이도가 낮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헤어 시장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며 광고 등을 통한 전환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두피, 모발건강을 위해 스스로가 두피, 모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두피, 모발관리 습관,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조절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개인의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또 패션경향, 내면적인 성격특성과 골격 및 이목구비 등 외면을 파악하여 이미지를 진단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헤어스타일과 헤어 칼라 등을 나타내는 이미지 구성 시스템을 제공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국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대 후반은 17~19세 및 20대 전반보다 노출수용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몸에 타이트하고, 노출이 많은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출의복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의류업계에서는 노출정도가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 각각의 노출정도가 다른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남녀대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제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판매촉진 계획과 소비자의 차별화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남녀 학생으로 한정되었고, 체형을 조사할 때 실증되어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지각하고 느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또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임의추출을 하였으므로 전체 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여 일

반화 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자기효능감은 구성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을 두어야 한다.

셋째, 신체노출태도에서 노출수용 상황이나 의복의 노출부위 측정문항이 한정되어 있고 의복유형에 따른 인지적 평가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조사시기가 9월~11월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피험자가 지각하는 신체노출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노출태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에 있어서 후속연구로 대학교를 남녀공학과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으로 분리하여 연구하거나 청소년, 중 · 장년, 실버세대 등 연구대상의 폭을 넓혀 보다 세부적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외모관리행동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변인의 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개념을 적용하고 다양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체노출 의복스타일과 다양한 의복품목에 대해 실제 착용사진을 통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관련 변인과 상황의 변화를 포함하며, 상·하의 노출의 상호작용효과도 고려한 복합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 (1979).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서울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 _____ (1994).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고애란, 강혜원 (1992). 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3), 181~195.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기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애란, 남미우 (1998). 성인남성의 성적 지향에 따른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4), 460~468.
- 고애란, 이수경 (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 구자명, 이명희 (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2~163.
- 구정화 (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김리라 (2004). 여대생의 모발미용 관리 및 형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애 (2002). 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2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대처방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선영 (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99~108.
- 김수경 (2005). 성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가 신체노출 의복의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05~114.
- 김숙례 (2000). 성인여성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순구, 박정순 (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305~313.
- 김아날리아 (2006). 프린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린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 김아형 (1996). 목표설정이론과 자기효능감: 자기조절이론 체계하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51.
- _____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김용주 (1999).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태.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윤정 (1992). 남자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 행동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 신소진 (1994).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501~514.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정립 (1990). 성정체감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의복행동 차이.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미 (2006). 남자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외모 관리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정애 (200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정애, 김용숙 (2001). 여고생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1), 55~73.
- 김지연, 이경희(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노출의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913~924.
- 김진숙 (1999).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재희 (1994).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창현 (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의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해정 (2004). 외모관리: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신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희창 (1999). 청소년기의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곽영심 (1998).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형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 권영미 (2004). 고등학생의 체중조절관심도와 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 노호은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호은, 박경자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55~71.
- 류현혜, 유태순 (2007). 노년 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복식, 57(9), 97~109.
- 명은진 (2000). 20, 30대 여성의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2.
- 문혜경, 유태순 (2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성향 및 스트레스정도에 따라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1(5), 77~94.
- 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 교육과학사.
-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

- 회지, 31(1), 163~180.
- 박은영 (1999). 자기 성장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취업 면접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박인미 (1989). 여고생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성격 및 사회계층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진아 (2000).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헌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문화대학 계명연구논총, 19, 7~23.
- 배정숙 (1998).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련화 (1998).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경자, 김재숙 (1999). 신체이미지, 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 ·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68~79.
- 송은영 (2002). 청소년의 자기이미지, 신체이미지와 의복무늬 선호 의복스타일 선호와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정은 (1996).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순자 (199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양숙희 (2001).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유경숙 (1996). 성역할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 유태순, 김성희 (2001). 자기효능감이 의복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복식, 51(2), 105~120.
-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 윤운성 (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67.
- 윤은아, 이선재 (2000). 성역할정체감의 겉옷 ·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2), 152~163.
- 이동영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동일 (2006). 건강달리기 프로그램 참여 전 · 후간 신체적 자기효능감 변화.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두형, 장충현 (1994).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연구. 대한성형외과 학회지, 21(3), 1138~1147.
- 이명희 (1982). 예의, 정숙성과 탐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 _____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4).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복식문화학회*, 12(6), 971~983.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애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박성은 (2004). 의복의 색과 노출정도가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 관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11), 137~150.
- 이미희 (2001). 여성 미용형태에 관한 연구: 화장 및 미용성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 이선재 (1996).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디자인에 나타난 음양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9, 71~83.
- 이선재, 백선영 (2000). 고교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55~66.
- 이수지 (1993).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시원 (2004). 공적 · 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이영숙, 이춘화, 이정애 (1996). 청소년 이성교재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4, 70~77.
- 이영주 (1999). 여대생의 체중조절행동과 의복만족도 및 신체노출 의복행동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영주, 임숙자 (2002). 체중조절행동과 신체노출 의복행동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1), 1491~1501.
- 이유선 (1998).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정 (2005). 20-30대 남성소비자들의 의복쇼핑성향과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9), 27~40.
- _____ (2007).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 성역할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4), 551~562.
- 이은희 (2000).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2(2), 237~251.
- 이익자 (2000). 중학생의 체중조절 관심도와 영양지식 및 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자 (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785~799.
- 이정연, 이창숙 (200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
- 이정옥, 권미정 (1996). 에로티시즘적 분위기 표현에 따른 의상디자인의 형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3~18.
- 이정희 (2005). 여대생의 헤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디자인 선호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지영 (1999).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화장품 소비행동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지현 (2004).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역할정체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현미 (1987).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정체감과 음양의복 행동간의 관계: 이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현옥, 구양숙 (2006).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의 동기연구: 성형수술, 비만 체형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113~122.
- 이현지, 박옥련 (2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 요

- 인: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1027~1035.
-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 ·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임선욱 (1991). 남성의 성역할과 광고에 대한 반응.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숙자 (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호정 (2000). 바디 이미지: 발전, 일탈, 변화. 서울: 교문사.
- 임혜원 (1999).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경선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미선, 이정연 (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43~447.
- 장하경, 서병숙 (1991). 성역할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67~179.
- 장휘숙 (1993).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경란, 이은희 (2005). 청소년들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4(1), 119~132.
- 전경숙 (2000). 남자 중 · 고등학생의 유행선도력과 정보원 활용 및 의류구매행동과의 관계연구. 복식, 50(7), 5~14.

- 전길양, 김정옥 (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 155~170.
- 전용민 (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준선 (2006).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현진, 정명선 (2008).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6(1), 115~129.
- 정규진 (2004). 자기표현과 외모관리 행동 및 신체노출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근백, 임동규, 이영주, 이숙기, 윤승욱 (1995). 인천시내 중고등학교들의 다이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6(4), 254~260.
- 정명선 (1984). 남녀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85~94.
- _____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감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165~179.
- 정복남, 추미선 (1983). 여고생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에 관하여(I): Design요소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논문집(사회계편), 22(1), 83~89.
- 정복자 (2005).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자존감, 신체적 자아효능감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삼호 (1990).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삼호, 강혜원 (1977). 태님의복을 중심으로 한 여대생의 의복행도에 관

- 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 65~70.
- 정유경 (2007). 20~30대 남성들의 체질량지수와 체중조절 실태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 정진봉 (1999).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기여 (1997). 자기효능감, 퍼스널 스페이스, 의복근접도, 화장 근접도와 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기여, 유태순 (1997.) 자기효능감, 화장근접도, 의복근접도의 상관관계. 복식, 32, 183~200.
- 조선진 (1996).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행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성선 (2001). 여대생의 모발건경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은영, 홍병숙 (1995).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5). 723~737.
- 조지숙, 김경연 (1994). 청소년의 신체상 매력 및 신체상 왜곡과 자존감과 의 관계.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서, 26~35.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경희, 강혜원 (1985).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1~8.
- 최미이 (2000). 직장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윤경 (1990). 성인여성의 성역할태도 및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석

- 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종철 (2003). 고등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련 행동 및 태도.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지성 (2002). 남성의 의복관리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현주 (2006). 20~30대 여성의 노출의상 착용현황 및 구매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
- 최현진 (2005). 중년여성의 성형수술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나이 들 (aging).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09~132.
- 하선정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과 성별 및 학년에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미연 (1994). 여대생의 사회적 태도와 신체노출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홍선옥 (1996). 운동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성역할 유형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홍선옥, 표내숙 (1994). 성역할에 따른 신체적 자기효능감 지각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10, 223~236.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인정 (1993). 원아, 학부모, 원장이 선호하는 유치원 교사의 체형과 이상적인 외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 Hamish, R. (1987).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2), 108~12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_____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_____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Bandura, A., Taylor, C. B., Williams, S. L., Mefford, I. N., & Barchas, J. D. (1985). Ca-technologize secretion as a function of perceived cop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406~414.
- Barnes, M. L., & Rosenthal, R. (1985). Interpersonal effects of experimenter attractiveness, attire,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435~44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_____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34~643.
- _____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2), 196~205.
- Bernard, J. (1976). Change and stability in sex-role norms and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207~224.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6), 512~526.
- Boroughs, M., Cafri, G., & Thompson, J. K. (2005). Male body depilation: Prevalence and associated features of body hair removal.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52(9-10), 637~644.
- Bouffard-Bouchard, T. (1990).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performance in a cognitive task.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3), 353~363.
- Cahoon, D. D., & Edmonds, E. M. (1987). Estimates of opposite-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 clothing sty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5, 406
- Cash, T. F., & Cash, D. W. (1982). Women's use of cosmetics: Psychological correlat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4, 1~13.

- Cash, T. F., Rissi, J., & Chapman, R. (1985). Not just another pretty face: Sex roles, locus of control and cosmetic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3), 246~257.
- Conner, B. H., Peter, K., & Nagasawa, R. H. (1975). Person and costume: Effect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32~41.
- Cox, C. L. &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s*, 14, 51~58.
- Davis, L. L. (1984).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20~24.
-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J. B. Lippincott Co.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Gayton, W. Matthews, G., & Burchstead, G. (1986). An investigation of the physical efficacy scale in predicting marathon performa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표내숙, 박순자, 황영성, 한남익 (1999).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육학습 지도의 현장 실험.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47~58에서 재인용.
- Gellathly, I. R., & Meyer, J. P. (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5), 694~704.

- Gibbins, K., & Coney, J. R.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720~722.
- Graham, J. A., & Jouhar, A. J. (1981).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199~210.
- Holahan, C. K., & Holahan, C. J. (1987).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42, 65~68.
- Humphrey, C., Klassen, M., &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Laura, B., Claudio, R., Franco V., & Silvia S. (1993). Influences of sports experience on physical self-efficacy, anxiety and self-concept. *8th World Congress in Sport Psychology*. 490-493.
- Lenney, E. (1991). Chapter 11. Sex roles: The measurement of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In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573~660, 이윤정 (2005). 20-30대 남성소비자들의 의복쇼핑성향과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9), 27~40에서 재인용.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Lewis, L. I., & Jonson, K. P. (1990). Effect of dress, cosmetics and casu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22~27.
- Lubner · Rupert, J. A., & Winakor, G. (1985). Male and female style preference and perceived fashion risk,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3), 256~266.
- Mathes, E. W., & Kempfer, S. B. (1976).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or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43), 495~498.
- Milgram, N. A., Sroloff, B., & Rosenbaum, M. (1988). The procrastination of everyday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2), 197~212.
- Miller, L. C., & Cox, C. (1982). For appearances sak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ke-up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748~751.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1), 10~16.
- Peterson, C., &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 Rudd, N. A., & Lennon, S. J. (1994).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7, 163~175.
- Ryckman, R. M., & Robbins, M. A., & Thorton, B., & Cantrell, P.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5), 891~900.
- Schunk, D. H. (1982).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_____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 71~86.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 Spence, J. T., Halmreich, R., & Stapp, J. (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r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 Thom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Vealey, R. S. (1998). Sources of sport-confidence: Conceptualiz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0(1). 54~80.

Wood, R. E., Mento, A. J., & Loc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3), 416~425.

Zimmerman, B. J. (1989).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329~338.

스포츠서울 (2007, 10. 11). 취업고시 패스하려면 외모관리도 필수. 자료검색일 2009, 2. 21, 자료출처 <http://www.sportsseoul.com>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 02. 13). 취업대란 시대, 몸매관리도 필요하다. 자료검색일 2009, 2. 21, 자료출처 <http://prlink.yonhapnews.co.kr>

EBN 전문지 (2008, 02. 12). 예비대학생들 등록금 걱정 1위. 자료검색일 2009, 2. 21, 자료출처 <http://www.ebn.co.kr>

ABSTRACT

A Study of Self-Efficacy, Sex Role Identity, and Appearance Attitude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Kim, Hyun-Jeoung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self-efficacy, sex role identity, and appearance related attitud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self-efficacy, appearance related attitude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appearance related attitudes, and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appearance related attitude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applied to this study. Four factors including self-control efficacy, social self-efficacy, physical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were used as self-efficacy, and five factors including skin care, weight control, clothing management, plastic surgery, and hair care were used a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elf-efficacy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ere examined

through 5-point Likert scale. Based on the median split method, four groups including bisexual, masculine,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groups were formed in terms of sex role identity. Physical exposure attitudes included the acceptability for body exposing clothes and the wearing of exposing clothes.

In addition, the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and body shapes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d gender, age, and social stratum. The subjects were 632 students (male: 302, female: 330)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rea. For the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s analysis, χ^2 -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1.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self-efficacy, sex role identit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physical exposure attitudes

First, self-control efficacy, physical self-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gender with the women being higher than the men in all the factors. The wo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control efficacy with the group of 25 or older being higher than the group of 24 or younger. In terms of body shapes, normal sized men showed higher social self-efficacy and physical self-efficacy than those of obese or thin body, while obese women showed lower physical self-efficacy than any other groups.

Secon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x role identity, the group of age 17 to 19 had higher femininity, and the group

of age 25 or older had higher bisexuality. In addition, the group of upper social class had bisexuality the most, while the group of lower or middle social class had undifferentiated group the most.

Third, clothing management, weight control, and plastic surgery management, and skin care showed a difference depending on gender, with the women being higher than the men. In terms of social stratum, women took clothing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by the order of upper, middle, and lower social class. The m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othing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depending on body shapes, with the group of thin body shape showing lower weight control and the group of obese body shape showing lower clothing management than the groups of thin or normal body shape. The thin women showed lower weight control than the groups of obese or normal body shape.

Fourth, in terms of acceptability for body exposing clothes depending on situations such as going on a vacation, going on a social gathering, going to school, going on a date, both the men and women showed the highest acceptability for body exposing clothes when going on a vacation and the lowest acceptability when going to school. In the aspects of differences depending on ages, the women in their late 20s showed lower acceptability for body exposing clothes than those of age 17-19 or in their early 20s. The men of upper social class showed higher acceptability for body exposing clothes than any other groups when going to school. The normal sized men wore tight shirts more frequently than those of obese or thin body shape. The normal sized

women wore chest exposing clothes the most frequently, while the female groups of thin or normal body shape wore the clothes with the whole shoulder exposed more frequently than the obese group. In addition, the women wore the clothes with the leg exposed more frequently by the order of thin, normal, and obese groups.

2.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and self-efficac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physical exposure attitudes, and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First, the male bisexual group showed the highest self-control efficacy, while the female bisexual, masculine, feminine groups showed higher self-control efficacy than the undifferentiated group. Both the male and female bisexual, masculine, and feminine groups showed higher self-efficacy than the undifferentiated group. The male bisexual and masculine groups showed higher physical self-efficacy, while the female masculine group showed the highest physical self-efficacy. In terms of task difficulty preference, both the male and female bisexual groups showed the highest awareness, while the male and female undifferentiated groups showed the lowest awareness.

Second, the female bisexual group had skin care the most, while the male bisexual group had clothing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the most. In addition, both the male and female bisexual groups had hair care the most.

Third, both the male and female masculine groups wore chest exposing clothes the most, while the female masculine group wore shoulder exposing and leg exposing clothes the most.

Fourth, the female bisexual group showed the highest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followed by the order of the masculine group, the feminine group, and the undifferentiated group. The me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according to sex role identity.

3. Correlations of Self-efficacy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Physical Exposure Attitudes, and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First, men who had higher self-control efficacy had more clothing management, but had less plastic surgery management and skin care. Women who had higher self-control efficacy had more clothing management and skin care. Men who had higher self-efficacy had less plastic surgery management, while women tended to have more clothing management and skin care. In addition, men who had higher self-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had less plastic surgery management.

Second, women who had higher self-control efficacy wore chest exposing clothes more frequently, while women who had higher social self-efficacy wore chest and legs exposing clothes more frequently. Men who had higher task difficulty preference wore shoulder and legs exposing clothes less frequently.

Third, women who had higher self-control 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expended more money for appearance management. Men didn't show any significance in self-efficacy and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4. Correlation of variables influencing appearance related attitudes

Women who had their sex role identity as bisexual, or had higher social stratum and self-control efficacy had clothing management the more ($R^2=.136$), while women who were older, were in higher social stratum, and had sex role identity as bisexual had more body shape management. More women had body shape management than men ($R^2=.065$). Those who had lower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physical self-efficacy had more plastic surgery management, and women had more plastic surgery management than men ($R^2=.152$). Women rather than men, those who were in higher social stratum and had sex role identity as bisexual had more skin care ($R^2=.228$). Those who had sex role identity as bisexual and lower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were in higher social stratum had more hair care ($R^2=.036$). Women who were older, in higher social stratum, and higher social self-efficacy expended more money for appearance management ($R^2=.099$). Women who had sex role identity as bisexual, were in higher social stratum, and had lower task difficulty preference showed more gro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influence of the five variables on the gro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as 16.8% ($R^2=.168$).

According to the findings above, those who were in higher social stratum, had sex role identity as bisexual and lower self-efficacy had mor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addition, those who were older had more weight control, while those who had higher self-control efficacy had more clothing management. In contrast, those who had

lower task difficulty preference had more plastic surgery management and hair care. In particular, those who had lower physical self-efficacy had more plastic surgery management. Women rather than men, who were older, in higher social stratum, and had higher social self-efficacy expended more money for appearance management. Women rather than men showed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 exposing clothes, and women in their late 20s had lower acceptability for them. In summary, it has been found that the sex role identity and self-efficacy which were used as psychological factor ar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and attitudes toward exposing clothes.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지 (남성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외모관리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는 무
 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행동하던 바를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2008. 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이명희
 연구자 : 김현정 드림

※ 다음은 평소에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 끔 그 렇 다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2.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나는 빨리 달리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5.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	2	3	4	5
6. 좀 실수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7. 나는 지금의 내 친구들을 내 사교성 덕분으로 사귀었다.	1	2	3	4	5
8. 나는 신체적 움직임이 세련되지 못하다.	1	2	3	4	5
9.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그것을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10.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11.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13. 나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1	2	3	4	5
14.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1	2	3	4	5
15. 나는 신체의 숙련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받을 때 자신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17. 나는 운동에 자신이 없다.	1	2	3	4	5
18. 사교적인 모임에서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1	2	3	4	5
1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0.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	2	3	4	5

※ 다음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당신 자신에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생각하여 보시고 자신과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1	2	3	4	5	6	7	질 문								
									1	2	3	4	5	6	7		
1	자기 소신을 지킨다	1	2	3	4	5	6	7	16	동정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2	변덕스럽다	1	2	3	4	5	6	7	17	자부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3	독립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18	단호하다	1	2	3	4	5	6	7
4	이해심이 있다	1	2	3	4	5	6	7	19	지배적이다	1	2	3	4	5	6	7
5	터놓지 않고 숨긴다	1	2	3	4	5	6	7	20	개성이 강하다	1	2	3	4	5	6	7
6	인정스럽다	1	2	3	4	5	6	7	21	따뜻하다	1	2	3	4	5	6	7
7	양심적이다	1	2	3	4	5	6	7	22	강경하다	1	2	3	4	5	6	7
8	다정하다	1	2	3	4	5	6	7	23	믿을만하다	1	2	3	4	5	6	7
9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5	6	7	24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	1	2	3	4	5	6	7
10	질투심이 많다	1	2	3	4	5	6	7	25	상냥하다	1	2	3	4	5	6	7
11	모험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26	적응력이 있다	1	2	3	4	5	6	7
12	진실하다	1	2	3	4	5	6	7	27	재치가 있다	1	2	3	4	5	6	7
13	상한기분을 잘 달래준다	1	2	3	4	5	6	7	28	아이들을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6	7
14	지도력이 있다	1	2	3	4	5	6	7	29	부드럽다	1	2	3	4	5	6	7
15	공격적이다	1	2	3	4	5	6	7	30	관습적이다	1	2	3	4	5	6	7

※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1	2	3	4	5
2.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1	2	3	4	5
4. 나는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1	2	3	4	5
5.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1	2	3	4	5
6.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 사용)을 사용한다.	1	2	3	4	5
7.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1	2	3	4	5
9.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1	2	3	4	5
10.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1	2	3	4	5
11.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1	2	3	4	5
12.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1	2	3	4	5
13.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2	3	4	5
14. 여드름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닌다.	1	2	3	4	5
15.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1	2	3	4	5
16.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1	2	3	4	5
17.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1	2	3	4	5
18.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1	2	3	4	5
19. 헤어 영양 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1	2	3	4	5
20.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한다.	1	2	3	4	5
21.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앳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 여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옷차림을 한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의견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대단히 반대한다	반 대한다	그 저 그 렇 다	찬 성 한 다	대 단 히 찬 성 한 다
(1) 가슴노출 : 목둘레를 깊게 파거나 단추 2개를 채우지 않은 셔츠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2) 어깨노출 : 소매 없는 셔츠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3) 다리노출 :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간 반바지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4) 밀착된 상의 :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폴터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 일상생활에서 다음 의상을 어느 정도 착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당신이 착용 가능한 정도를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입 지 않 는 다	입 을 의 향 이 있 다	가 끔 입 는 다	입 는 다
1. 가슴노출 : 목둘레를 깊게 파거나 단추2개를 채우지 않은 셔츠	1	2	3	4
2. 어깨노출 : 소매 없는 셔츠	1	2	3	4
3. 다리노출 :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간 반바지	1	2	3	4
4. 밀착된 상의 :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폴터	1	2	3	4

1. 당신의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월평균 지출 비**는 얼마입니까?(의복, 화장, 헤어, 체중, 피부관리 등을 모두 포함)
- ① 10만원 미만 ② 10~15만원 미만 ③ 15~20만원 미만 ④ 20~25만원 미만
 ⑤ 25~30만원 미만 ⑥ 30~35만원 미만 ⑦ 35~40만원 미만 ⑧ 40~50만원 미만 ⑨ 50만원 이상

2. 당신의 **현재 체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개중 1개만 표시)
- | | | | | | |
|----------|-----------|------------|-----------|----------|-----------|
| | ┌ ① 마른 체형 | | ┌ ④ 마른 체형 | | ┌ ⑦ 마른 체형 |
| a. 키가 작고 | └ ② 보통 체형 | b. 키가 표준이고 | └ ⑤ 보통 체형 | c. 키가 크고 | └ ⑧ 보통 체형 |
| | └ ③ 살찐 체형 | | └ ⑥ 살찐 체형 | | └ ⑨ 살찐 체형 |

※ 다음은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세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신은 어느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개중 1개만 표시)
- | | | | | | |
|---------|--------------|---------|--------------|---------|--------------|
| | ┌ ① 상층() | | ┌ ④ 상층() | | ┌ ⑦ 상층() |
| a. 상류층의 | └ ② 중층() | b. 중류층의 | └ ⑤ 중층() | c. 하류층의 | └ ⑧ 중층() |
| | └ ③ 하층() | | └ ⑥ 하층() | | └ ⑨ 하층() |

**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지 (여성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외모관리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는 무
 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행동하던 바를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2008. 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이명희
 연구자 : 김현정 드림

※ 다음은 평소에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 끔 그 렇 다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1.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1	2	3	4	5
2.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나는 빨리 달리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5.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	2	3	4	5
6. 좀 실수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7. 나는 지금의 내 친구들을 내 사교성 덕분으로 사귀었다.	1	2	3	4	5
8. 나는 신체적 움직임이 세련되지 못하다.	1	2	3	4	5
9.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그것을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10.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11.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13. 나는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1	2	3	4	5
14.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	1	2	3	4	5
15. 나는 신체의 숙련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받을 때 자신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17. 나는 운동에 자신이 없다.	1	2	3	4	5
18. 사교적인 모임에서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1	2	3	4	5
1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0.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	2	3	4	5

※ 다음의 여러 가지 특성이 당신 자신에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생각하여 보시고 자신과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기 소신을 지킨다	1	2	3	4	5	6	7	16	동정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2	번덕스럽다	1	2	3	4	5	6	7	17	자부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3	독립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18	단호하다	1	2	3	4	5	6	7
4	이해심이 있다	1	2	3	4	5	6	7	19	지배적이다	1	2	3	4	5	6	7
5	터놓지 않고 숨긴다	1	2	3	4	5	6	7	20	개성이 강하다	1	2	3	4	5	6	7
6	인정스럽다	1	2	3	4	5	6	7	21	따뜻하다	1	2	3	4	5	6	7
7	양심적이다	1	2	3	4	5	6	7	22	강경하다	1	2	3	4	5	6	7
8	다정하다	1	2	3	4	5	6	7	23	믿을만하다	1	2	3	4	5	6	7
9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5	6	7	24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	1	2	3	4	5	6	7
10	질투심이 많다	1	2	3	4	5	6	7	25	상냥하다	1	2	3	4	5	6	7
11	모험심이 강하다	1	2	3	4	5	6	7	26	적용력이 있다	1	2	3	4	5	6	7
12	진실하다	1	2	3	4	5	6	7	27	재치가 있다	1	2	3	4	5	6	7
13	상한기분을 잘 달래준다	1	2	3	4	5	6	7	28	아이들을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6	7
14	지도력이 있다	1	2	3	4	5	6	7	29	부드럽다	1	2	3	4	5	6	7
15	공격적이다	1	2	3	4	5	6	7	30	관습적이다	1	2	3	4	5	6	7

※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1	2	3	4	5
2.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1	2	3	4	5
4. 나는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1	2	3	4	5
5.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1	2	3	4	5
6.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 사용)을 사용한다.	1	2	3	4	5
7.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1	2	3	4	5
9.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1	2	3	4	5
10.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1	2	3	4	5
11.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1	2	3	4	5
12.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1	2	3	4	5
13.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2	3	4	5
14. 여드름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닌다.	1	2	3	4	5
15.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1	2	3	4	5
16.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1	2	3	4	5
17.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1	2	3	4	5
18.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1	2	3	4	5
19. 헤어 영양 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1	2	3	4	5
20.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한다.	1	2	3	4	5
21.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앳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1	2	3	4	5

※ 여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옷차림을 한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의 의견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대단히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저 그렇다	찬성한다	대단히 찬성한다
(1) 가슴노출 :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골선이 약간 보이는 상의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2) 어깨 전체 노출 : 끈 달린 상의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3) 넓적다리노출 :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간 하의(예: 핫팬츠, 미니스커트)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4) 배꼽노출 : 짧은 상의	1. 학교에 갈 때	1	2	3	4	5
	2. 이성 친구를 만날 때	1	2	3	4	5
	3. 모임에 갈 때(동아리, 동호회 등)	1	2	3	4	5
	4. 휴가 갈 때	1	2	3	4	5

※ 일상생활에서 다음 의상을 어느 정도 착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당신이 착용 가능한 정도를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입지 않는다	입을 의향이 있다	가끔 입는다	입는다
1. 가슴노출 : 가슴이 깊게 파여 가슴골선이 약간 보이는 상의	1	2	3	4
2. 어깨 전체 노출 : 끈 달린 상의	1	2	3	4
3. 넓적다리노출 :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간 하의(예: 핫팬츠, 미니스커트)	1	2	3	4
4. 배꼽노출 : 짧은 상의	1	2	3	4

1. 당신의 외모관리에 사용되는 **월평균 지출 비**는 얼마입니까?(의복, 화장, 헤어, 체중, 피부관리 등을 모두 포함)
- ① 10만원 미만 ② 10~15만원 미만 ③ 15~20만원 미만 ④ 20~25만원 미만
 ⑤ 25~30만원 미만 ⑥ 30~35만원 미만 ⑦ 35~40만원 미만 ⑧ 40~50만원 미만 ⑨ 50만원 이상

2. 당신의 **현재 체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개중 1개만 표시)
- | | | | | | |
|----------|-----------|------------|-----------|----------|-----------|
| a. 키가 작고 | ┌ ① 마른 체형 | b. 키가 표준이고 | ┌ ④ 마른 체형 | c. 키가 크고 | ┌ ⑦ 마른 체형 |
| | └ ② 보통 체형 | | └ ⑤ 보통 체형 | | └ ⑧ 보통 체형 |
| | └ ③ 살찐 체형 | | └ ⑥ 살찐 체형 | | └ ⑨ 살찐 체형 |

※ 다음은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세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신은 어느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개중 1개만 표시)
- | | | | | | |
|---------|--------------|---------|--------------|---------|--------------|
| a. 상류층의 | ┌ ① 상층() | b. 중류층의 | ┌ ④ 상층() | c. 하류층의 | ┌ ⑦ 상층() |
| | └ ② 중층() | | └ ⑤ 중층() | | └ ⑧ 중층() |
| | └ ③ 하층() | | └ ⑥ 하층() | | └ ⑨ 하층() |

** 대단히 감사합니다.